

2016년 한국서양고전학회 겨울 학술대회 자료집

# 호메로스와 트로이아 전쟁

일시: 12월 10일 (토) 13:30-18:00

장소: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서양고전학회

주관: 경희대학교 BK21+ 사업팀, 대우재단

# 일 정

사회: 이종환 (서울시립대)

- 13:10-13:30 등록 및 개회사  
최 화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경희대)
- 13:30-14:30 제 1발표  
**장엄에서 경악으로**  
<일리아스>의 영웅상에 대한 거울이미지로서의 폴뤼페모스  
발표자: 김준서 (서울대)
- 14:30-15:30 제 2발표  
**호메로스의 전쟁과 인간**  
발표자: 이준석 (서울대)
- 15:30-15:50 휴식
- 15:50-16:50 제 3발표  
**고전기 오디세우스 담론**  
발표자: 최혜영 (전남대)
- 16:50-17:50 제 4발표  
**트로이아전쟁과 범그리스주의**  
이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발표자: 김 현 (서울대)

# 장엄에서 경악으로 <일리아스>의 영웅상에 대한 거울이미지로서의 폴뤼페모스

김준서 (서울대학교 고전학 협동과정)

## 1. 들어가는 글

칼립소의 억류로부터 벗어난 오딧세우스는 <오딧세이아> 5권에서 포세이돈이 보낸 폭풍을 만나 난파하게 되고, 표류 끝에 피아케스 인들이 사는 스키테리아 섬의 해변에 도달한다. 그는 아테네와 나우시카아의 도움으로 피아케스 인들의 왕 알키노오스의 궁전에 받아들여지고, 이후 그의 손님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오딧세우스는 여왕 아레테의 질문에 불구하고 한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를 꺼리지만, 트로이의 목마에 관한 데모도코스의 노래를 듣고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에 이른다. 알키노오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그가 어찌다가 자신의 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오딧세우스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후 1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딧세이아> 9권부터 12권에 걸쳐 펼쳐지는 오딧세우스의 이 회고담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전반적인 성격<sup>1)</sup>과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환상적인 모험으로 가득한 까닭에 분석론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Reinhardt와 Heubeck의 기념비적인 저작들<sup>2)</sup>이 출간된 이래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분석론자들의 접근방법을 용도폐기 되기에 이른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오딧세이아>의 전체 구조와 주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전제 아래 이 모험담이 가지는 의의와 역할을 조명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 글에서 다룰 외눈박이 거인 폴뤼페모스와의 만남은 상기한 오딧세우스의 모험담 가운데 키르케의 거주지인 아이아이아 섬 방문, 그리고 저승 여행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에피소드로, 특히 인물에 대한 묘사라는 점에 있어서 여타 모험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섬세함을 보여준다. 덧붙여서 이 에피소드는 오딧세우스의 모험담 가운데 동화적이고 민담적인 요소를 단연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성 덕분에 폴뤼페모스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되어 왔는데, 기존의 연구 경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경향은 상기한 폴뤼페모스 이야기의 눈에 띄는 특징, 즉 동화적/민담적 성격에 주목하여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서사시라는 장르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고 그로부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sup>3)</sup> 두 번째 방향은 20세기 중반 서구 지성계를 강타한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해당 에피소드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오딧세우스와 폴뤼페모스의 만남을 ‘문명(문화) 대(對) 야만(자연)’이라는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sup>4)</sup> 앞서 언급한 두 연구 경향이 작품 외적인 해석의 틀로 폴뤼페모

1) Fränkel(1951), Griffin(1977).

2) Heubeck(1954), Reinhardt(1960).

3) Page(1955), Glenn(1971), Mondt(1983), Schein(1970).

4) Kirk(1970), Detienne and Vernant(1978), Vidal-Naquet(1996), Burkert(1979).

스 에피소드에 접근하고 있다면, 이제 소개할 나머지 두 연구 경향은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당 에피소드의 의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는 <오뒷세이아>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 ξενία<sup>5)</sup>를 중심으로 이 일화를 해석하는 것이고<sup>6)</sup>, 또 다른 하나는 <오뒷세이아> 1권 초반에 제우스의 입을 통해 제시되는 소위 '신정론(theodicy)'<sup>7)</sup>의 맥락에서 폴뤼페모스와 오뒷세우스의 행위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이다.<sup>8)</sup>

상기한 연구들은 모두 폴뤼페모스 이야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윤리적이고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 글은 이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폴뤼페모스 에피소드에 접근할 것인데, <오뒷세이아>의 시인이 <일리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모델이자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sup>9)</sup>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이 글은 폴뤼페모스에 대한 묘사가 <일리아스>에서 영웅들-특히 아킬레우스-이 그려지는 모습과 명백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청중에게 전달되는 효과에 있어서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해당 에피소드가 <일리아스>의 시인이 작품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는 주요한 미학적 전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 2. 일리아스적 과도함(Iliadic Excess)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놀라운 완력과 거대한 몸집,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전투 속에서 보여주는 드높은 기개와 강렬한 분노는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선다. 이러한 일종의 “과도함”은 <일리아스>의 시인이 자신의 영웅들을 형상화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단지 등장인물들에만 적용되는 전략은 아니다.

<일리아스>에서 양군이 격돌할 때 전사들이 내딛는 발걸음은 대지를 떨게 만들고, 그들이 내지르는 함성과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는 대기를 뚫고 하늘에 닿는다. 전장은 패자의 신음소리와 승자의 환성으로 가득하고, 죽은 자들로부터 흘러내린 피는 마치 강물처럼 흘러 대지를 적신다. 신들에 대한 묘사도 마찬가지이다. 불멸의 신들은 인간들보다 월등하게 크고 무거우며, 그들이 전장에서 내지르는 함성은 양군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든다. 때로는 전투를 부추기기 위해, 때로는 전투를 멈추기 위해 제우스가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는 전조들은 그 비정상적인 거대함으로 인해 그것을 바라보는 전사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헤파이스토스가 아킬레우스를 위해 제작한 무구의 정교함과 그로부터 울리는 소리는 아킬레우스를 제외한 모든 뿔미돈 전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감히 신의 걸작을 바

5) ξενία는 주인의 방문객에 대한 의무는 물론 방문객의 주인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하는 상호적인 관습으로, 마땅한 한글 번역을 찾기 어려운 까닭에 그리스어로 표기한다.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hospitality'로, 그리고 독일어로는 'Gastfreundschaft' 등으로 번역되지만 이들 역시 ξενία의 의미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포괄하는 번역어는 아니다. 『오뒷세이아』에서 ξενία는 상대방이 문명화된 인간 인지를 가능하는 중요한 관습으로, 이 관습을 준수하느냐 위반하느냐 여부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중대한 모티프이다. 오뒷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참전으로 자리를 비운 이타케의 궁전에서 구혼자들이 벌이는 횡포, 방문객에게 미약을 먹여 동물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키르케의 마법, 그리고 자신의 거처를 찾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식사거리로 삼아버리는 폴뤼페모스의 행위는 모두 ξενί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왜곡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6) Most(1989), Ahl and Roisman(1996).

7) *Od.* 1.32~43.

8) Allen(2006), Brown(1996), Segal(1992), Friedrich(1987).

9) Rutherford(1993), Heubeck(1954), Redfield(1973).

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sup>10)</sup> 이 모든 묘사들은 수사적인 과장(hyperbole)이 아닌 ‘사실적인’ 표현으로, 시인은 무사이 여신들의 눈에 비추어진 광경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일리아스>의 등장인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대상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청중 역시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율의 감정을 심미적 경험으로서의 “장엄함(das Erhabene)”이라 규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엄함은 일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규모나 강도를 지닌 대상과 마주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대상을 온전히 포착하는 개념적 사유가 마비되는 상황은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악이나 거부의 감정과는 다른, 인식능력을 넘어서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심미적 충격과 연결되는바, 이는 <일리아스>의 시인이 ‘위대함’이라는 핵심 주제를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미학적 전략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중으로 하여금 이러한 장엄함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주요한 대상은 바로 <일리아스>의 영웅들이다. 디오메데스는 아이네이아스를 향해 “요즘 사람들이라면 둘이서도 옮기지 못할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내던진다. 헥토르가 아카이아 군의 방벽 입구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바위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도시에서 가장 힘센 장정 두 명이 수레 위에 실을 수도 없을 정도”이며, 아킬레우스의 창은 그 주인을 제외하면 누구도 들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다. 심지어 노령 때문에 더 이상 사지에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탄하는 네스토르마저 다른 이들은 간신히 들어 올릴 정도로 무거운 술잔에 포도주를 따라 마신다.<sup>11)</sup> <일리아스>의 시인은 상기한 표현들을 통해 영웅들의 완력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능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일리아스>의 전사들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그 체구에 있어서도 거대하다. “πελώριος/πέλωρ”은 이와 같은 영웅들의 특징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일리아스> 내에서 아가멤논, 아이아스, 헥토르, 그리고 아킬레우스와 같은 주요 인물들이 바로 이 단어로 지시된다.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의 외연은 그저 크고 거대하다는 물리적 속성에 국한되지 않는데, 이 단어는 신성(神性)을 지닌 대상, 더 나아가 신들 자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까닭이다. 제우스가 전조로서 내려 보낸 등이 붉은 거대한 뱀, 아레스가 휘두르는 창,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아킬레우스의 무구 등이 “πελώριος/πέλωρ”라 불리는 대상이고, 하데스와 아레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와 같은 신들 역시 바로 이 단어를 통해 지시되는 대상들이다. 하지만 “πελώριος/πέλωρ”과 결합된 신적인 거대함은 단순히 경탄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조명되지는 않는다.

“πελώριος/πέλωρ”라고 불릴 때 아레스는 예외 없이 아카이아 군의 전사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있다. 헤라는 올림포스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제우스의 명령에 대한 거역의 제스처로 자신의 거대한 창을 집어 드는데, 이 때 그녀의 창은 “πελώριος/πέλωρ”라 불린다. 이는 영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우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아카이아 군을 도륙하는 헥토르와, 맹수와도 같이 전장을 누비며 시체의 산을 쌓아올리는 아킬레우스 역시 바로 이 단어를 통해 묘사된다. 따라서 “πελώριος/πέλωρ”는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거대함에 대한 경탄의 감정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거대함이 발생시키는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요소에 대한 공포의 감정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즉 “πελώριος/πέλωρ”라는 단어에 담

10) II. 19.12~9.

11) 디오메데스: II. 5.302~5, 헥토르: II. 12.446~9, 아킬레우스: II. 16.141~2, 네스토르: II. 11.636~7.

12) 아테네가 휘두르는 아이기스의 중앙에 새겨진 고르코를 “πέλωρ”라 부르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이 보다 명확해진다(II. 5.741).

긴 대립하는 속성들의 공존이 보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끔 만드는, 혹은 장엄함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의미론적 구조인 것이다.

“πελώριος/πέλωρ”와 마찬가지로 “ὄβριμος” 역시 상기한 <일리아스>의 미학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이다. 이 형용사는 크기나 무게, 강함 등과 같은 물리적 속성이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설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일리아스>에서 이 형용사는 전사들이 전투에서 휘두르는 창(ἔγχος)과 가장 빈번하게 결합하고, 그 외에는 아레스와 헥토르, 그리고 아킬레우스에게 적용된다. “πελώριος/πέλωρ”가 전장에서 활약하는 신이나 인간에게 적용되듯이, “ὄβριμος” 또한 예외 없이 적군을 도륙하는 아레스와 영웅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이 단어 역시 “πελώριος/πέλωρ”가 그러하듯이 상호 대비되는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양가성(ambivalence)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일리아스> 내에서 이 단어가 합성어로 사용된 두 번의 사례를 확인하면 된다.

<일리아스> 5권에서 디오메데스는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 나타난 아프로디테의 손을 창으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여신에게 전장에서 떠나라고 위협한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의 도움으로 올림포스로 돌아와 울먹이면서 어머니 디오네에게 사연을 털어놓는다. 그러자 디오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아프로디테를 달랜다.

참아라, 내 딸아, 마음이 괴롭더라도 꼭 참도록 해라.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많은 신들이 서로 심한 괴로움을  
안겨다 주며 인간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으니까.  
아레스도 고통을 받았지. 알로에우스의 두 아들 오토스와  
강력한 에피알테스가 그를 튼튼한 사슬로 묶었을 때 말이다.

(중략)

헤레도 고통을 받았단다. 암피트뤼온의 강력한 아들이  
미늘 셋 달린 화살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맞혔을 때 말이다.  
그리하여 그때 그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단다.  
또한 무시무시한 아이데스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날랜 화살에  
고통을 받았지. 같은 사나이, 즉 아이기스를 가진 제우스의 아들이  
펠로스에서 사자(死者)들 사이에 있던 그를 쏘아 고통에  
넘겨주었을 때 말이다...

(중략)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자로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지. 자신의 악행은  
생각지도 않고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활을 쏘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말이다.<sup>13)</sup>

(II. 5.382~404)

위의 인용문에서 밑줄을 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ὄβριμος”의 합성어인 “ὄβριμοεργός”이다. 디오네는 이 단어를 헤라클레스의 폭력성과 불경함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리아스>를 넘어서 그리스 서사시 전통 내에서 헤라클레스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하면 “ὄβριμοεργός”라는 표현이 단지 청중들에게 헤라클레스의 “폭력”과 “불경”에 관한 부정적인 함의만을 전달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ὄβριμος”가 지니고 있는 양가성은 이 단어의 또 다른 합성어를 통해 분명해지는데, 아테네에게만 독점적

13)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번역은 기본적으로 천병희 역을 따르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함.

14) Galinsky(1972).

으로 적용되는 별칭(epithet)인 “ὄβριμοπάτριη”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단어를 번역하자면 “강력한 아버지를 가진 딸”, 혹은 “강력한 아버지의 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테네가 제우스의 딸임을 감안할 때 “ὄβριμος”가 지시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올림포스의 주인 제우스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먼저 살펴본 “πελώριος/πέλωρ”가 그렇듯이 “ὄβριμος” 역시 “일리아스적 과도함”, 즉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이러한 “ὄβριμος”의 양면성으로부터 <일리아스>의 시인이 자신의 영웅들이 지닌 위대함을 형상화하는 또 다른 미학적 전략이 모습을 드러낸다.

위에서 인용된 헤라클레스의 행위는 “ὄβριμος”라고 정의됨으로써 해소 불가능한 모순에 놓이게 된다. 신들에 대한 그의 폭력은-디오네가 비난하듯이-인간과 신의 경계를 존중할 줄 모르는 자가 벌인 극단적으로 불경한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의 영역에 근접하는 영웅적 탁월함을 증명하는 행위, 즉 사람들의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업적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러한 모순적 구도는 실제 <일리아스>의 전사들이 벌이는 행위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난다. 디오메데스는 아프로디테가 물러난 이후 아이네이아스의 목숨을 빼앗고자 재차 덤벼든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디오메데스의 공격이 아폴론이 아이네이아스를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시인은 디오메데스가 “δαίμονι ἴσος”, 즉 “마치 신과도 같이” 아이네이아스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노래한다.<sup>15)</sup> 비슷한 행위를 아킬레우스가 <일리아스> 21권에서 반복한다.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전장으로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자신이 살해한 트로이군의 시체로 스카만드로스 강을 가득 채운다. 그러자 강의 신은 아킬레우스의 무자비한 학살극으로 인해 강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 없다면서 그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이를 일축하고 강물로 뛰어들어 살육을 이어간다.<sup>16)</sup> <일리아스>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영웅의 ‘무쌍 난무(ἀριστεία)’의 중심에는 이처럼 탁월함과 불경함이 서로 등을 맞댄 채 지양되지 않는 긴장상태가 놓여있다. 위에서 살펴본 헤라클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디오메데스와 아킬레우스의 행위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경솔함이나 사람들의 경탄을 받아 마땅한 위업 어느 한 쪽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이 환원불가능성은 <일리아스>의 중요한 주제인 ‘위대함’을 형성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 해소 불가능한 모순이야말로 위대함을 눈앞에 두고 경험하게 되는 “장엄함”의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소되지 않는 긴장관계는 반대 극단에 위치한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일리아스>의 전사들이 전장에서 무용을 떨칠 때 시인은 이들을 야수의 모습을 빌려 묘사한다. 특히 이와 같은 비유(simile) 장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맹수는 사자로, 전장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전사의 기세와 용맹함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동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 역시 양가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대를 거칠 것 없이 살육하는 전사의 잔혹성과 비정함이 그를 인간 이하의 존재, 즉 굶주린 야수에 가까운 존재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헥토르를 살해한 뒤 그의 시체를 훼손하는 아킬레우스를 향한 아폴론의 평가는 이러한 양면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신들이여, 그대들은 잔인한 아킬레우스를 돕고자 하지만  
 그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며 그의 심중의 생각은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냥기가 사자와 같습니다.

15) II. 5.438.

16) II. 21.223~34

마치 자신의 큰 힘과 거만한 용기에 고무되어 사람들의 양떼 속으로  
뛰어들어 끼니를 마련하는 사자와도 같은 말입니다.

(II. 24.39~43)

전장에서 발휘되는 영웅적인 탁월함이 위로는 신성(神性)에 닿는다면, 아래로는 그와 정반대의  
속성인 야수성과 겹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리아스> 22권에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는 마침내  
마주서게 되는데, 결투에 앞서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에게 일종의 신사협정, 즉 승자가 패자의  
시신을 아군에 돌려주자는 맹약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대해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답한다.

헥토르여, 잊을 수 없는 자여, 내게 합의에 관해 말하지 말라.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시종일관 서로 적의를 품는 것과 같이

꼭 것처럼 나와 그대는 친구가 될 수 없으며 우리 사이에는

맹약이란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자신의 피로 불굴의 전사 아레스를 배불리기 전에는 말이다.

(II. 22.261~267)

자신을 사자로, 적수인 헥토르를 인간으로 비유하는 아킬레우스의 모습으로부터 시적 장치로  
서의 비유와 작품 내 현실 사이의 구분이 흐릿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서로 죽고 죽  
이는 전쟁 속에서도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확인하게끔 해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관습조차 거부  
함으로써 스스로 말하듯이, 인간이 아닌 “사자”, 즉 피와 살을 탐식하는 한 마리의 야수에 가  
까워진다. 결투가 끝난 후 마지막 숨을 내쉬며 자신의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간청  
하는 헥토르를 향해 아킬레우스는 “너의 살을 물어뜯어 생으로 씹어 먹고 싶다”고 대답함으로  
써 자신이 인간이라기보다는 피에 굶주린 야수에 더 가깝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다.<sup>17)</sup>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성취한 업적의 정점이 바로 헥토르를 살해한 것이라는 사  
실을 감안하면, 영웅적 탁월함이 야수적인 잔혹성 그리고 비정함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리아스>의 전사들이 보여주는 인간 이하의 면모는 작품 속에  
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리아스> 11권에서 아가멤논은 전장에서 마주친 안테노르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다.<sup>18)</sup>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희생자 이파다마스과 코온이 다른 아닌 안테노르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다. 안테노르는 메넬라오스와 오뒷세우스가 사절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법도에 맞게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티마코스의 음모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그는 헬레네와 파리스가 훔쳐온 보물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sup>19)</sup> 따  
라서 아가멤논은 메넬라오스의 형제로서 안테노르와 ξείνα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일리아스> 내에서 조부들 사이의 ξείνα조차 그 손자들이 서로 싸움을 피해야 할 합당한  
이유로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하면,<sup>20)</sup> 아가멤논이 안테노르의 두 아들을 살해하는 행위는 인간

17) II. 22.344~5.

18) II. 11.221~263.

19) II. 7.348~353.

20) <일리아스> 6권에서 디오메데스는 그들의 조부들이 ξείνα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글라우코스와 대결을 거부하  
고, 이후로도 전장에서 마주치더라도 서로 싸우지 말 것을 제안한다. 글라우코스도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서  
로의 무구를 교환하고 헤어진다.

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도를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아킬레우스의 잔혹성은 아가멤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트로이의 소년 열두 명을 파트로클로스를 위한 산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사이에 맺어진  $\xi\varepsilon\nu\acute{\iota}\alpha$  관계를 상기시키며 막대한 몸값을 지불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뤼카온의 탄원을 거절하고 단칼에 살해한 후 시체를 강물 속으로 내던지며 조소하는데,<sup>21)</sup> 이는  $\xi\varepsilon\nu\acute{\iota}\alpha$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아있기 위해 지켜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법도인  $\iota\kappa\varepsilon\sigma\acute{\iota}\alpha$ (탄원의 법도)마저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헤라클레스의 신들에 대한 폭력이 단순한 불경함이 아니듯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잔인한 행위 역시 그저 인간 이하의, 짐승과도 같은 잔혹함과 비정함과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리아스> 내에서 영웅적 탁월함은 야수적인 잔혹성, 그리고 비정함과 뿔레아 떨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까닭이다.

### 3. 폴뤼페모스: 깨어진 거울에 비친 <일리아스>의 전사

트로이를 함락시킨 후 귀향길에 오른 오뒷세우스와 동료들은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한 끝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 귀향에 대한 열망을 잊게 만드는 수수께끼의 식물 로토스( $\lambda\omega\tau\acute{o}\varsigma$ )를 주식으로 하는 로토파고이 족(族)의 나라를 거쳐 오뒷세우스는 마침내 퀴클롭스 족의 영역에 도달한다. 해안에 위치한 동굴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흔적을 발견한 오뒷세우스는, 열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동굴을 찾아간다. 하지만 동굴에는 가축들만 가득할 뿐 주인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가축들을 흠쳐 달아나자는 동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뒷세우스는 동굴의 거주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동굴로 돌아온 폴뤼페모스를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 그가 마른 장작으로 쓸 엄청난( $\acute{o}\beta\rho\iota\mu\omicron\varsigma$ ) 나뭇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저녁을 짓는 데 쓰려는 것이었소.  
그가 그것을 동굴 안에 내던지자 굉장한( $\acute{o}\rho\upsilon\mu\alpha\gamma\delta\acute{o}\varsigma$ ) 소리가 났고,  
우리는 겁에 질려 동굴 맨 안쪽으로 황급히 달아났소.

(중략)

그런 후 그는 커다란, 엄청난( $\acute{o}\beta\rho\iota\mu\omicron\varsigma$ ) 바위를 높이 집어 들고는  
동굴 입구를 막았소. 바위가 넷 달린 훌륭한 수레  
스물 두 대로도 땅에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고 가파른 바위로 문을 막았던 거요.

(Od. 9.233~243)

폴뤼페모스에 대한 오뒷세우스의 묘사로부터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그려지는 방식과의 유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폴뤼페모스가 짙어지고 온 나뭇짐, 그리고 그가 동굴 입구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리는 바위는 “ $\acute{o}\beta\rho\iota\mu\omicron\varsigma$ ”라는 익숙한 형용사로 지시되고 있다. 이 표현이 <일리아스>에서 단 한 번의 예외<sup>22)</sup>를 제외하면 신들과 전사

21) II. 21.122~35

22) 전장의 소음에 대한 비유로 제시된 거센 물결을 한정하는 데 사용된다(II. 4.453).

들, 그리고 전사들이 전투에서 사용하는 창을 수식한다는 점, 그리고 <오뒷세이아>에서는 오직 폴뤼페모스가 다루는 대상들에만 독점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오뒷세이아>의 시인이 폴뤼페모스와 <일리아스>의 영웅들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뭇짐이 땅에 떨어질 때 울리는 소리-오뒷세우스와 동료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게 만드는-는 “ὄρυμαγδός”라는 형용사가 수식한다. 이 단어는 <일리아스>에 열세 번 등장하는데, 이 중 열 번의 사례가 전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덧붙여 <오뒷세이아>에서 이 표현은 구혼자들이 연회에서 내는 소음, 아킬레우스의 장례식에서 아카이아 군이 행진할 때 울리는 소리, 그리고 위 인용문을 포함해서 세 번 등장하는바, <오뒷세이아>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안에서 구혼자들과 폴뤼페모스가 가지는 높은 수준의 유사성<sup>23)</sup>을 감안하면 “ὄρυμαγδός” 역시 “ὄβριμος”와 마찬가지로 <일리아스>의 전사들과 폴뤼페모스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위 인용문에서 폴뤼페모스와 <일리아스>의 영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또 다른 장치로 <일리아스>의 시인이 즐겨 쓰는 독특한 표현 방식, 즉 “not X could do Y, but he did it easily” 구문<sup>24)</sup>을 지목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이 표현이 사용된 사례로 디오메데스와 헥토르가 던지는 바위, 아킬레우스의 창, 그리고 네스토르의 술잔을 살펴본바 있다. 이들 외에도 <일리아스>에는 “not X could do Y, but he did it easily” 구문이 세 번 더 등장하는데, 아이아스와 아이네이아스가 적수를 향해 던지는 바위,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막사 입구에 걸려 있는 빗장이 바로 이 구문에 의해 묘사되는 대상들이다.<sup>25)</sup> <일리아스>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이 구문을 위의 인용문을 포함해 단 두 번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문에 의해 묘사되는 남은 하나의 대상은 호전적인 거인족인 라이스트뤼고네스인들이다.<sup>26)</sup>

폴뤼페모스의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체구 또한 <일리아스>의 영웅들과 같은 용어로 묘사되는데, 오뒷세우스는 폴뤼페모스와 만나 겪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맨 가장자리 바닷가에 월계수로 덮인 높다란  
동굴 하나를 보았는데...

(중략)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πελώριος) 사내가 잠을 자곤 했는데,  
그는 홀로 떨어져 작은 가축떼를 먹이곤 했소. 그자는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떨어져 살면서 온갖 불법을 꾀하고 있었소.  
그자는 엄청나게 거대한(πελώριος),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진 나머지  
곡식을 먹는 인간 같지가 않고 높은 산들 사이에

23) 폴뤼페모스와 구혼자들은 인간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노동 없는 낙원과도 같은 삶을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진다.

24) de Jong(2001), 239.

25) *Il.* 12.381~382, 20.286~287, 24.455~456. 특히 마지막 사례는 오직 아킬레우스만이 홀로 걸고 벗길 수 있는 막사 입구의 빗장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우들보다도 폴뤼페모스의 사례와 한층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

26) 거대하고 호전적인 식인종이란 공통점 덕분에 폴뤼페모스와 라이스트뤼고네스 측은 후자가 더 문명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뒷세우스의 모험담 내에서 거의 동일한 존재들로 간주된다. 이들은 도망가는 오뒷세우스의 선단을 향해 “한 사람이 겨우 짊어질 크기의 바위를” 돌팔매질하듯 내던져 배를 부수고, 바다에 떨어진 오뒷세우스의 동료들을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작살로 꿰어 식사거리로 챙겨간다(*Od.* 10.121~125).

홀로 우뚝 솟아있는, 숲이 우거진 산봉우리 같았소.

(Od. 9.182~192)

위 인용문에서도 폴뤼페모스의 모습은 <일리아스>의 시인이 자신의 전사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표현들로 묘사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πελώριος”로, 폴뤼페모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몸집이 이 낯익은 형용사의 반복을 통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이 단어는 이후로도 두 번이나 더 폴뤼페모스를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폴뤼페모스와 <일리아스>의 영웅들과의 공통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속임수에 넘어가 시력을 잃은 폴뤼페모스는 작고 약한 사내에게 농락당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경멸조로 오뒷세우스를 “무가치한 자(οὐτιδανός)”라고 부른다. 이 표현은 <일리아스>와 <오뒷세우스>에서 공히 자신보다 열등한 자에게 육체적으로든 자존심에 있어서든 상처를 입은 영웅의 분노가 담긴 호칭으로,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와 디오메데스가 각각 아가멤논과 파리스를 경멸조로 부르는 데 사용된다.<sup>27)</sup> 이에 덧붙여서 오뒷세우스는 폴뤼페모스를 “용맹함을 온몸에 두른(ἐπιειμένον ἀλκήν) 사내”라고 부르는데, 이 정식구(formula)는 <일리아스>에서 두 아이아스의 전사로서의 용맹함이 빛을 발할 때 등장하는 문구이다.<sup>28)</sup>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리아스>의 전사들과 폴뤼페모스를 연결해주는 단어는 “비정한(νηλεής)”이란 형용사이다. 이 단어는 두 서사시 모두에서 청동으로 된 무기를 지시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실상 무기를 뜻하는 환유(metonym)로서의 “청동(χαλκός)”에 대한 별칭(epithet)이다. 따라서 이 형용사는 청동 이외의 대상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무생물과 연결되지만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에 각각 한 번씩의 예외가 존재하는바, 이들은 바로 아킬레우스와 폴뤼페모스이다.<sup>29)</sup> 더 나아가 둘 사이의 동질성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요소는 두 등장인물이 동일한 맥락 하에서 “νηλεής”로 칭해진다는 사실이다.<sup>30)</sup>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폴뤼페모스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일리아스>의 전사들을 묘사하는 데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차용하고 있다. 일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거대한 크기, 강함, 무게, 격렬함 등을 표현하는 단어와 정식구들은 <일리아스>의 영웅에게 그러하듯이 폴뤼페모스에게도 같은 속성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유사성, 아니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중 인물은 물론이고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πελώριος”로 정의되는 폴뤼페모스의 비일상적 거대함은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오뒷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에게도 “놀라움(θαῦμα)”으로 다가오지만, 그 놀라움이 낳는 것은 전율이나 장엄함이 아닌 순수한 공포, 그리고 경악이다. 오뒷세우스는 그의 거대함을 “곡식을 먹는 인간 같지가 않고 높은 산들 사이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숲이 우거진 산봉우리 같았다”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는 폴뤼페모스와 동질적인 존재로 제시되는 라이스트뤼고네스 족의 여왕에 대한 반응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라이스트뤼고네스 족의 나라에 상륙한 오뒷세우스는 세 명의 동료를 뽑아 정찰대로 파견한다. 그들은 라이스트뤼고네스 족의 궁전에서 그들의 여왕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왕의 모습을

27) 아킬레우스: II. 1.231 & 2.293, 디오메데스: II. 11.390.

28) II. 7.164, 8.262, 18.157.

29) Nestle(1942).

30) 아킬레우스의 경우 그의 재참전을 요청하는 전우들의 탄원을 거절할 때(II. 9.000), 그리고 폴뤼페모스는 자신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오뒷세우스의 탄원을 뿌리칠 때(Od. 9.272) 각각 “νηλεής”로 수식된다.

오뒷세우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안티파테스의 집으로 들어갔고, 안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소.  
그녀는 산봉우리만큼이나 덩치가 커서, 보기에 혐오스럽기 이를 데 없었소.

(Od. 10.112~3)

위 인용문에서 혐오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καταστυγέω”로, 일반적으로 역겨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하는 동사인 στυγέω에 접두어 κατά가 결합한 형태론적 특징으로부터 이 단어가 전달하는 혐오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καταστυγέω”는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에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하는 드문 단어인데, <일리아스>에서 이 동사는 파트로클로스의 전사 소식을 전해들은 안틸로코스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이다.<sup>31)</sup> 앞에서 인용된 부분에 등장하는 “ὄρουμαγδός”와 “ὄβριμος” 역시 “πελώριο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두 형용사로 묘사되는 대상, 즉 폴뤼페모스가 가져온 “ὄβριμος”한 나뭇짐이 땅에 떨어질 때 내는 “ὄρουμαγδός”한 소음으로부터 오뒷세우스와 그의 동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순수한 공포와 경악만을 느낄 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일리아스>에서 이 단어들 전달하는 심미적인 전율이나 장엄함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비정함을 표현하는 형용사 “νηλεής”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리아스>에서 탄원을 거절하는 아킬레우스와 이 단어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효과는 단지 비인간적인 동정심의 결여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νηλεής”가 표현하는 비정함의 정도는 아킬레우스라는 탁월한 영웅에게 있어 명예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영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오뒷세우스의 동료들을 잡아먹을 때 폴뤼페모스를 한정하는 “νηλεής”에는 그 어떤 숨겨진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형용사는 폴뤼페모스가 사실상 무생물인 “청동(χαλκός)”이나 다름없는 존재임을 지시하는 기능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방식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그 방식이 발생시키는 효과의 차이는 단지 단어와 정식구의 중첩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인간과 신의 경계 위에서 탁월함과 불경함을 오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폴뤼페모스 또한 신의 총애와 불경함이라는 화해 불가능한 대립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폴뤼페모스는 탄원자와 방문객의 수호신인 제우스의 뜻을 받들어 탄원자로서 그의 거처를 방문한 자신들을 해치지 말고 손님으로서 받아들여달라는 오뒷세우스의 요청을 다음과 같은 말로 거절한다.

이방인이여, 내게 신들을 두려워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걸 보니  
그대는 어리석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모양이군.  
퀴클롭스 족은 아이기스를 지닌 제우스도 다른 축복 받은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니 말이지.  
내 마음이 그리 시키지 않는 이상 나는 제우스의 미움을 피하고자  
그대나 그대의 동료들에게 손대는 것을 삼갈 일은 없을 것이야.

(Od. 9.273~278)

위에 인용된 폴뤼페모스의 자기 과시는 <일리아스>의 전사들이 보여주는 불경함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아래에 소개될 퀴클롭스 족의 삶에 대한 오뒷세우스의 묘사는 이와 같은 신성모독

31) Il. 17.692.

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들은 불멸하는 신들을 믿고서는  
손수 씨를 뿌리지도 쟁기질을 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온갖 작물들-밀이며 보리, 굵직한 포도송이들을  
가져다주는 포도덩굴이며-이 파종도 쟁기질도 없이 자라나지요.  
거기다 제우스가 그들을 위해 비를 내려 작물들을 풍성하게 한다오.

(Od. 9.106~111)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위 인용문에 묘사된 퀴클롭스 족의 삶은 헤시오도스가 언급하는 “황금의 종족”이 누리는 것 이상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많은 점에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을 포함한) 영웅들의 종족 일부가 제우스의 인도 아래 정착하게 되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μακάρων νῆσοι)”에서의 생활과 유사하다.<sup>32)</sup> 이뿐만이 아니다. <오뒷세이아> 1권에서 제우스는 오뒷세우스가 겪는 고통이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 그에게 끊임없이 줄곧  
노여워하고 있구나. 이는 그가 모든 퀴클롭스 족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신과 같은(ἀντίθεος) 폴뤼페모스의 논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 퀴클롭스를 낳은 것은 님프 토오사인데, 그녀는  
불모의 바다를 다스리는 포르퀴스의 딸로서  
속이 빈 동굴 안에서 포세이돈과 몸을 섞었었지.

(Od. 1.68~73)

상기한 제우스의 언급은 그 자체로 모순어법(oxymoron)의 성격을 띤다. 육보격(hexameter) 서사시에 반영된 상고기 그리스의 세계관에서 신과 신이 결합하여 낳은 존재가 인간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님프인 토오사의 아들인 폴뤼페모스는 당연히 신이어야 한다. 하지만 제우스는 폴뤼페모스를 “신과 같다(ἀντίθεος)”고 칭하는데, 이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별칭(epithet)이다. 이에 더해서 오뒷세우스는 폴뤼페모스를 언급하면서 누차 반복해서 “사내(άνηρ)”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신이 아닌 인간임을 강조한다.<sup>33)</sup>

폴뤼페모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 그의 주거지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오뒷세우스는 그가 “맨 가장자리 바닷가에 월계수로 덮인 높다란 동굴 하나를 보았는데 (….) 그곳에서는 엄청나게 거대한 사내가 잠을 자곤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호메로스 서사시에서 동굴은 Graziosi와 Haubold가 이야기하듯이 그저 “인간이 아닌 존재의 거주지”<sup>34)</sup>가 아니라, ‘신성을 지닌, 또는 신적인 존재’가 머무는 장소이다.<sup>35)</sup>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불멸의 신들에 가까운 만큼 그들과 존재론적 위계서열의 반대 극단에 위치한 야수들에 근접한다는 특징을 폴뤼페모스 또한 공유하고 있다. <일리아스>에서 아가

32) Clay(1987), Heubeck(1990), Kirk(1970).

33) Od. 9.187, 214, 494.

34) Graziosi and Haubold(2005).

35) II: 포세이돈의 말, 테티스, 헤파이스토스. Od.: 칼립소, 토오사, 프로테우스, 퀴클롭스 족, 스킬라, 님프, 에일레튀이아.

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도인 ξενία와 ἱκεσία를 위반함으로써 인간 이하의 존재에 가까워지듯이, 폴뤼페모스 역시 손님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오뒷세우스의 탄원을 무시하고 도리어 그의 동료 여섯 명을 잡아먹음으로써 ξενία와 ἱκεσία를 한층 더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위반한다. 자신과 같은 동족을 먹이로 삼는다는 것은 상고기 그리스 세계관의 존재론적 위계서열을 구성하는 ‘신-인간-짐승’ 중 짐승만의 고유한 특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sup>36)</sup> 폴뤼페모스가 이 행위로 인해 인간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운 존재로 전락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일리아스>의 영웅들과 같은 방식으로 폴뤼페모스라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어째서 <일리아스>의 전사들이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전율이나 장엄함과 같은 심미적 충격을 폴뤼페모스는 낳지 못하는가?

Griffin이 지적하듯이, 아킬레우스로 대표되는 <일리아스>의 영웅들이 전달하는 비극성은 신도 짐승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진 덧없음과 취약함을 깨닫는 과정에 있다.<sup>37)</sup>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비애뿐이라는 비극적 깨달음, 그리고 위로는 신성(神性)에 이르고 아래로는 야수성에 근접하는 전사들의 위대함, 이 둘 사이에 형성되는 해소되지 않는 긴장관계야말로 <일리아스>의 영웅들을 지켜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엄함의 정수인 것이다. 하지만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실명한 폴뤼페모스가 자신이 기르는 숫양을 쓰다듬으며 쏟아내는 울분에 찬 탄식을 통해 비극적 깨달음을 희화함으로써 그와 같은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숫양이여, 어찌 너는 가축들 중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굴에서 나오느냐? 너는 전에는 뒤쳐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가장 먼저 풀밭의 부드러운 꽃들을  
 뜯고, 가장 먼저 강의 흐름에 도착하고는 했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로 돌아오려 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맨 꼴찌로구나. 확실히 너는 네 주인의 눈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게로구나...

(중략)

... 아아, 네가 나처럼 느끼고 말할 수가 있어서  
 어디서 그자가 내 노여움을 피하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자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그 곱이 동굴 여기저기에  
 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아무 쓸모없는 자인 無人(Oὔτις)이  
 내게 가져다 준 불행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Od. 9.447~60)

비극적 깨달음의 핵심은 그 보편성에 있다. 이러한 보편성 덕분에 거의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인물들인 프리아모스와 아킬레우스가 서로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폴뤼페모스가 느끼는 공감은 우스꽝스러운 착각에 불과하다. 숫양은 그저 배에 매달린 오뒷세우스의 무게로 몸이 무거워진 나머지 평소와는 달리 가장 늦게 동굴을 빠져나간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숫양의 걸음걸이를 묘사하는 표현인 “성큼성큼 걸어가서는(μακρὰ βιβάζς)” 역시 폴

36) WD. 277~9.

37) Griffin((1980).

뤼페모스의 비애를 희화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문구는 이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에서 공히 ‘자부심 넘치는 영웅의 걸음걸이’<sup>38)</sup>를 묘사하는 정식구인 까닭이다.<sup>39)</sup> 그 결과 외견상으로 파트로클로스 사후 아킬레우스의 독백처럼 무거운 파토스로 가득한 폴뤼페모스의 한탄은 <일리아스>의 비극적 깨달음에 대한 조소로 이어진다.

#### 4. 나오는 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뒷세이아>의 시인이 폴뤼페모스를 <일리아스>에서 그려지고 있는 영웅들에 대한 패러디이자 캐리커처로 제시함으로써, <일리아스>의 주도적인 미학적 전략을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오뒷세이아>의 시인이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신들과 짐승들 사이에 놓인 중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sup>40)</sup> <일리아스>는 이 구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역이 위아래 양방향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즉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신과, 그리고 짐승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따라서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는 <일리아스>의 인물들은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영광도 고통도 모두 그와 같은 조건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신들에 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순적인 두 속성이 화해를 이룰 수 없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오직 양극단 사이의 중간자로서만 남게 된다.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고통과 비애일 뿐이라는 <일리아스> 특유의 비극적 깨달음은 <일리아스>의 시인이 택한 길이 도달하게 되는 필연적인 종착점이라 할 수 있겠다.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일리아스>의 시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을 택한다. <일리아스>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능성의 최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오뒷세이아>는 중간자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고유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오뒷세이아>의 중심부를 차지하는 오뒷세우스의 모험담을 통해 <오뒷세이아>의 시인은 인간의 영역이 다른 존재들, 즉 신들과 짐승들의 영역과 겹쳐질 때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파멸적인 결과가 찾아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으며, 폴뤼페모스 에피소드는 오뒷세우스의 다양한 모험담 가운데 그러한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화이다. <오뒷세이아> 12권에서 세이렌들이 부르는 죽음의 노래가 지극히 ‘일리아스적’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sup>41)</sup> 신들과 짐승들로부터 최대한 떨어진 위치에서 인간 존재의 고유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오뒷세이아>의 시인에게 <일리아스>는 매혹적인 죽음의 노래인 까닭이다.

38) Heubeck(1990).

39) *Il.*: 3.22(파리스), 7.213&15.686(아이아스), 15.307(헥토르). *Od.*: 11.539(아킬레우스)

40) Clay(1987).

41) Pucci(1997).

## 호메로스의 전쟁과 인간

이준석

서울대 서양고전학 협동과정 강사

### 1. 구송 영웅시의 패턴

20세기 초반,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있었던 구송호메로스 가설을 받아들였던 Milman Parry는 1933-1935년 사이 두 차례에 걸친 유고슬라비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신을 굳히게 된다.<sup>1)</sup> 그는 조수 Albert Lord와 함께 여러 구송 가수들의 공연을 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Avdo Mededović (c. 1875-1953)에게서 *Ženidba Smailagić Meha* (Smail의 아들 Meho의 결혼식, 12,311행)과 *Bećiragić Meho* (6313행) 등 여러 작품들을 채록해내는 데에 성공한다.

이들이 채록한 구송 서사시에서, 시인은 술레이만 1세 치하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튀르크 제국의 영광의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그 저류에는 과거의 보스니아 영웅들이 제국에 바친 충성심이 흐른다. 이 영웅시들에서는 과거에 아버지가 달성했던 무훈을, 아들이 똑같이 성공해내는 패러다임이 보인다. 보스니아 무슬림 남자들의 전통적인 덕목이 주인공 안에 체화되어 있고, 청자들은 이 가치를 공유하며 그의 무훈을 즐겁게 감상한다<sup>2)</sup>. 대결의 구도 역시 분명하다. 무장 장면이라는 하나의 전형적 장면을 예로 들어보자. 남슬라브 서사시에서는 영웅이 무장을 갖추는 장면은 예외 없이 단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그가 “타지로, 혹은 먼 외국으로 출정하여, 교활하고 술책에 능한 적수와 맞서야하는 위험한 임무를 감행해야 함을 의미한다.”<sup>3)</sup> 이렇게 분명한 선악의 구도로 인해 주인공은 정의의 사도가 되고, 그가 타도해야 할 주적은 헝가리왕국의 지도자, 장군같은 ‘악랄한’ 이교도들로 설정된다. 주인공이 재정립하는 질서는, 그의 무훈에 힘입은 적 세력의 약화와 국경 확충 등으로 구체화된다. Lord는 이러한 남슬라브 구송서사시의 패턴을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공식화한다.<sup>4)</sup>

- 1) 영웅의 부재 (Absence)
- 2) 아군의 유린과 황폐 (Devastation)
- 3) 영웅의 귀환 (Return)
- 4) 영웅의 보복 (Retribution)

1) M. Parry 1971: “When one hears the Southern Slavs sing their tales he has the overwhelming feeling that, in some way, he is hearing Homer.” (p.378)

2) Bynum 1968: 1297, Lord 1991: 60.

3) Foley 2002: 57.

4) Lord 1995: 11. cf. Foley 1999: 121.

## 5) 영웅의 결혼(Wedding)

Lord는 이 패턴을 호메로스에게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가 남슬라브의 여러 전통 서사시들과 똑같은 패턴과 테마를 공유하는, 철저히 전통적인 구송 서사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sup>5)</sup> 이는 현대 호메로스 문헌학에서,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설로 남아 있다.

## 2. 문제제기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호메로스 연구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일리아스』는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사악한 적군을 물리치고 영광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시인은 양편을 동등한 무게로 다루고 있다.<sup>6)</sup> 영웅들이 명예를 얻어내는 장이 되어야 할 전쟁은 많은 눈물을 쏟게 하는 것 (πόλεμον πολύδακρυον *Il.* 3.132, 3.165, 8.516, 19.318, 22.487), 몸서리일게 하는 것 (πολέμοιο στυγεροῖο, στυγερῶ Ἄρηι *Il.* 2.385, 4.240, 6.330, 8.368, 18.209, 19.230)으로 기록될 뿐이다. 『오뒷세이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텔레마코스는 여행 중에 트로이아 전쟁의 승리자들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상실과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할 따름이다 (*Od.* 3.103-16, 4.90-112).<sup>7)</sup> 오뒷세우스는 무구전쟁에서 아이아스를 꺾고, 아킬레우스 사후 1인자로 인정받았고, 목마를 고안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모든 승리의 기억들은 그의 내부에서 후회와 눈물을 불러 일으킨다 (*Od.* 8.492-531, 11.543-62).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는 당대의 청자들에게 친숙한 에피소드들과 전통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영웅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실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을 전통적인 스토리 패턴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영웅들의 행적과 운명은 이미 오랜 전통 속에서 잘 알려져 있으나, 호메로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에피소드들을 단지 반복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sup>8)</sup>

물론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각각의 원재료들의 근본적인 차이점들로 인해 여러 면에서 다른 속성을 가지며,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가 많은 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영웅이라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서사시에는 주인공들을 다른 인물들과 구별짓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영웅성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각각의 영웅들은 시가 진행되면서 커나가고, 발전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종류의 명예를 얻게 된다.<sup>9)</sup> 이 논의는 몇 개의 소제목 아래에

5) Lord 1995: 1-21.

6) Taplin 1980: 16; Morrison 1994: 221; Stoevesandt 2005: *passim*.

7) Griffin 1987: 93; Rutherford 1993: 137.

8) Griffin 1977; *passim*; Currie 2006: 41.

9) 아킬레우스의 캐릭터 발전에 대해서는 Most 2003: 72-4. 오뒷세우스의 캐릭터 발전에 대해서는 Reinhardt 1960: 65-6; Friedrich 1975: 147-54; Rutherford 1986: 145-62; Segal 1994: 198-224; Brown 1996: 24. cf. Robert 1994: 1-25.

서 진행된다: 죽음의 경험과 수락, 동정심, 새로운 영웅성으로서의 휴머니티이다.

### 3. 친숙한 시작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 모두 호메로스는 처음에는 독자/청중들에게 친숙한 관습적인 설정 위에서 플롯을 전개해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주인공들을 다른 인물들과 차별화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속성을 부여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습적인 설정 속에서 그림으로써, 각각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가치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게 된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다툼으로 시작한다. 명예를 훼손당한 아킬레우스의 원한은, 명예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전사들의 세계관을 통해 잘 설명된다. 그러나 이 테마는 18권에서 그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접한 이후 다시는 플롯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후의 사태의 진행을 통해, 다만 그의 분노의 방향만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 아킬레우스라는 인물 자체가 이미 전통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뒷세이아』에서 주인공이 소개되는 방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미 서사에서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도시의 파괴자’로, ‘많이 떠돌아다닌’ 오뒷세우스로 소개된다 (*Od.* 1.1-2). 헬레네와 메넬라오스는 그를 ‘피많은’, ‘많이 참아내는’ 사나이로 회상하고 있다. 모두 전통적인 오뒷세우스의 수식어들이다. 스스로의 회상에서도 초반의 두 에피소드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트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도시의 파괴자’ 오뒷세우스는 퀴코네스 족들을 침공한 후, *philotimia*라는 영웅적 코드를 모티브로 동굴에 남아 폴리페모스를 기다린다. 그는 다가올 재앙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타의 영웅들처럼 크세니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물질적인 증표를 얻기 원했던 것이다. 이후 그의 무장과 동료들을 향한 격려 등은 일리아스의 전투 장면의 정형구들로 이루어지고, 승리를 거둔 이후 패자에 대한 조롱과 우월감의 표출 모두 전통적인 전사들의 전형적인 패턴들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련의 방랑들과 고립을 거치며 그는 더 이상 관객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인물로 점점 변해간다.

### 4. 죽음의 경험과 수락

『일리아스』 18권에서 아킬레우스가 상징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up>10)</sup>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먼지를 끼얹어 자신의 머리를 더럽히고 흠바닥에 눕는다 (*Il.* 18. 23-7, *Od.* 24.40). 이는 일리아스에서 살해당한 전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cf.* *Il.* 3.55), 흠먼지에 뒤덮인 사르페돈의 시신 (*Il.* 16.639-40)이나, 아킬레우스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가며 머리칼을 더럽히고 있는 헥토르의 시신을 (*Il.* 22.402-3, 405) 상기

10) Rutherford 2001: 261-2.

시킨다.<sup>11)</sup> 테티스는 네레이데스들과 함께 아킬레우스를 두고 통곡한다. 이는 우리가 오뒷세이아에서 보게 될 그 자신의 장례식과 상응한다 (*Od.* 24.43-92).

테티스는 헥토르를 죽이면 곧 아킬레우스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리라고 경고한다 (*Il.* 18.94-6). 그러나 그는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복수하기로 결심함으로써, 임박한 죽음을 택하고 (*Il.* 18.98-101, 114-6, 329-33) 생존의 연장이라는 선택지를 버린다 (*Il.* 9.316-20, 401-16). 여기서, 호메로스는 그의 운명을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닌, 자기 결단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sup>12)</sup>

오뒷세우스가 겪는 죽음의 체험은 아킬레우스의 것보다 비극적 속성은 약하나, 좀 더 직접적이다. 이타카인들은 오뒷세우스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Od.* 14.130-8, 19.312-4). 그들은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Od.* 2.233-4, 5.11-2). 호메로스의 사회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사람의 두 번째이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아직 살아 있는 자로서 하데스를 방문한다. 그가 하데스로부터 키르케에게 되돌아 왔을 때 그녀는 그를 모든 인간들 중에서 '두 번 죽는 자'로 부른다 (*Od.* 12.22). 그가 칼립소의 섬에서 죽음과 다른 없는 생존을 이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즉, 그는 죽음의 섬에서 '숨기는 자'에 의해 묻혀져 있었던 것이다.<sup>13)</sup>

그는 하데스에서 죽음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배운다.<sup>14)</sup>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테이레시아스와 만났을 때, 그는 개인적인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Od.* 11.139). 곧이어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는 인간 보편의 운명을 배운다 (*Od.* 11.216-22).

오귀기아 섬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칼립소가 주는 불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은 죽어야 할 운명을 선택하겠노라 역설한다.<sup>15)</sup> 그는 봄에 피는 제비꽃과 가을에 피는 쉐러리가 동시에 만발한 영원의 세계 (*Od.* 5.72-3)를 떠나,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와 꽃이 피고 지는 세계,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세계로 돌아온다 (*Od.* 24.342-44).

물론, 아킬레우스는 집에 돌아올 수 없고, 오뒷세우스는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다를지언정, 선택의 동기는 다르지 않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거부한 것은 익명의 수월함 속에 매몰되어 존재감없는 생존을 연장하는 것이다.<sup>16)</sup> 이들 각각은 스스로의 영웅적인 튀모스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리아스』의 세계는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죽음의 필연성이 철통의 법칙이 되어 다스리는 곳이다. 이와 반대로, 『오뒷세이아』는 대안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 곳은 메넬라오스가 제우스의 사위라는 이유로 영생을 얻는 곳이다 (*Od.* 4.561-9). 따라서, 생사관에서 볼 때, 많은 학자들이 『오뒷세이아』의 위치를 엄격한 『일리아스』와, 불사를 남발하는

---

11) 강대진 1997: 42.

12) Segal 1971: 57-71; Rutherford 2001: 262. cf. *Il.* 1.352, 9.412-3.

13) 칼립소와 오귀기아섬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Güntert 1919: 28-36, 164-72; Anderson 1958: 5-10.

14) Segal 1994: 37-44.

15) Austin 1975: 252; Vernant 1982: 17-8; Rutherford 1986: 160; Vidal-Naquet 1991: 47.

16) Rutherford 1993: 133.

서사시권 시 사이 어딘가에 위치시켜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뒷세이아』는 생사문제에 있어서 『일리아스』만큼 엄격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sup>17)</sup> 그러나, 우리가 오뒷세우스의 선택으로 초점을 좁히면, 문제는 달라진다. 오뒷세우스 본인은 불사의 가능성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캐릭터들이었다면 받아들였을 이 특권적인 운명을, 그러나 그는 온 힘을 다해 거부한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의 필멸자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의 선택이 어떤 외적인 동기에 의해 요구된 것도 아니고, 우연의 결과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뒷세이아』에서 필멸의 운명에 대한 영웅적 추구는, 『일리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시 전체의 방향타가 된다.

## 5. 동정심

호메로스에서, "휴머니티는 근본적으로 죽어야 할 운명과 연결될 수 밖에 없으며, 삶조차도 죽음에 대한 각성을 통해 정의된다".<sup>18)</sup> 일단 이 두 영웅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호메로스는 그들의 동정심을 보여준다. 이는 휴머니티의 또 다른 숭고한 측면이다.<sup>19)</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리아스』의 독특한 면모 중 하나는 바로 희생자에 대한 시인의 부고이다. 사르페돈, 파트로클로스, 그리고 헥토르를 제외하면, 나머지 희생자들은 이렇다 할 비중이 없는 무명의 인물들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시인에 의해 서럽고 가슴 아픈 사건들로 그려진다. 시인은 쓰러진 젊은이들의 부모, 아내, 아이들을 상기시키며 이 작품을 어떤 한 편의 영웅적인 승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동등히 주어지는 죽음의 기록"으로 남긴다.<sup>20)</sup> 이들의 운명을 일관되게 동정의 시선으로 그려온 호메로스의 파토스는, 『일리아스』의 마지막 권에 이르러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에 의해 공유된다.

아킬레우스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프리아모스의 고통에 반응한다. 그들은 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아킬레우스가 동료 희랍군 누구와도 나누기 힘든 공통의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혈연도, 국적도 뛰어넘은, 인간 공통의 운명, 슬픔, 죽음의 희생자들인 두 인간으로서이다. 고통 중에서, 이 두 남자는 각자의 개인적인 슬픔 너머를 보게 되고, 적과 나 사이에 얽힌 슬픔 너머마저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의 각자의 슬픔들을, 참된 인간조건 *condicio humana* 이라는 시선 아래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sup>21)</sup>

동정심을 품는 영웅의 모습은 『오뒷세이아』에서도 발견된다. 영웅이 하데스에서 옛 전우들을 만날 때, 그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일관된 동정심과 연민이다 (*Od.* 11.391-6, 478-86, 506-37, 553-62). 심지어 그의 동료들 중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자였던 엘페노르를

17) Griffin 1976: 169. n.32; Edwards 1985: 216-27; Pucci 1987: 151-2.

18) Segal 1994: 37.

19) Macleod 1982: "[...] for pity, as Homer and the Greeks represent it, is a sense of shared human weakness. And it is pity which is at the heart of Homer's conception of poetry." (pp.13-4).

20) Marg 1957: 14. 무명의 전사들의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파토스에 대한 연구로는 Strasburger 1954: *passim*. 이러한 파토스를 엄격하게 절제된 호메로스의 형식과 결부시킨 연구로는 Griffin 1976.

21) Burkert 1955: *passim*; Rutherford 2001: 285, 289-90; Most 2003: 71-4.

만날 때에도, 그는 눈물을 쏟으며 가슴 속 깊이 그를 동정한다 (*Od.* 11.55).<sup>22)</sup>

거지로 변장한 오뒷세우스와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의 대화에서도, 초점은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정과 연민, 상호이해이다 (*Od.* 14.360-2, 15.485-7).<sup>23)</sup>

데모도코스가 트로이아의 함락을 노래할 때, 오뒷세우스는 그의 눈물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한다. 시인은 그를 도시를 방어하던 남편이 쓰러져 죽고, 이제 자신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여인에 비유한다 (*Od.* 8.521-31). 이 직유에서, 우리는 오뒷세우스의 마음 속에서 연민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다.<sup>24)</sup> 승리자와 희생자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동일 선상에 놓이는 이 직유에서,<sup>25)</sup> 그는 마치 프리아모스와 함께 통곡하던 아킬레우스처럼, 피아를 넘어선 인간 공통의 고통의 배경을 알아차린 것이다.<sup>26)</sup>

## 6. 새로운 영웅성, 휴머니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호메로스 영웅성의 핵심은 영광이다. 그러나, 모든 영광이 다 같지는 않다. 필자는 호메로스 서사시에 상이한 두 가지 영웅성이 있다는 가설을 말하고 싶다: 먼저, 모든 다른 인물들이 즐기치게 얻고자 노력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kleos apthiton*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 시의 막바지에서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휴머니티에 근거한 새로운 종류의 영광이 있다. (*Il.* 4.237-9, 6.447-63, 22.62-5. cf. *Il.* 9.593-4, *Od.* 14.264-5).

일반적으로, 『일리아스』에서 전사들의 시선은 전쟁에서 영광을 얻는 것에 고정된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도시를 함락하고, 모든 성인 남자들을 도륙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자 한다. (*Il.* 4.237-9, 6.447-63, 22.62-5. cf. *Il.* 9.593-4, *Od.* 14.264-5). 『일리아스』 내부의 시간구성에서만 보자면, 어떤 탄원자도 전장에서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sup>27)</sup> 한 개별 전사가 아무리 너그럽다하더라도, 메넬라오스의 예에서 보듯이 그의 마음 속에서 동정심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 아드레스토스가 메넬라오스에게 석방금을 약속하며 자비를 요구할 때, 그의 마음은 잠시 흔들린다. 그러나 그는 트로이아인들에게 어떤 자비심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아가멤논에게 설득당하고, 아가멤논이 그를 죽이는 것을 방관한다. 비록 메넬라오스가 『일리아스』에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들 중 하나일지라도,<sup>28)</sup> 그는 아가멤논의 무자비한 충고를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였고,<sup>29)</sup> 트로이아의 파괴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천명한다 (*Il.* 13.620-39).

그러나 호메로스는 이들의 맹목적인 가치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킬레우스가 프

22) Segal 1994: 41-3.

23) Segal 1994: 129-30.

24) Macleod 1982: 4.

25) Thalmann 1984: 165.

26) Rutherford 1986: 156.

27) Most 2003: “[...] The sole exceptions are from earlier times (*Il.* 21.77, 100-2) [...].” (p.55. n.16).

28) Willcock 2002: 224.

29) Yamagata 1990: 421.

리아모스에게 건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II. 24.518-51), “신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을 나누어주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위로가 없다”.<sup>30)</sup> 전쟁은 영광을 가져다주는커녕, 양편 모두에게 슬픔과 고통만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II. 6.124=7.113=8.448=24.391).

제우스는 아킬레우스로 하여금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도록 명령하며, 이것이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II. 24.110). 영웅은 제우스에게 복종하고 그 영광을 얻는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을 통해 이 영광을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낸다. 그는 헥토르의 시신을 단순히 돌려주는 것을 넘어, 트로이아인들이 헥토르를 합당히 장례하고 애곡할 수 있도록 휴전을 약속한다 (II. 24.656-72. cf. II. 24.778-804). 그는 파트로클로스와 헥토르의 죽음을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sup>31)</sup> 아킬레우스의 영웅성은 승리의 쟁취에 정신이 팔린 희랍군의 가치들을, 심지어는 제우스가 그에게 주려했던 명예마저도 멀찌감치 초월해버린 것이다.<sup>32)</sup>

오뒷세이아에서도 남아버린 전사들의 맹목은 미화되지 않는다. 오뒷세우스가 구혼자들을 도륙한 후, 에우뤼클레이아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려고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승리자가 쓰러진 적을 두고 자랑을 내뱉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sup>33)</sup> 그러나 영웅은 그녀를 제지하고 가로막는다. 경건과 인간 한계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Od. 22.407-12).<sup>34)</sup>

페넬로페와의 재결합, 이것은 분명 가장 기쁜 순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인은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식의 cliché를 거부한다. 여기에서조차도, 영웅은 연약한 인간운명에 대한 깊은 자각을 드러낸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잃어버린 젊음을 이야기하고 (Od. 23.210-12),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한다 (Od. 23.248-50). 이는 고생 없이 수월한 삶을 영원히 이어가는 신들의 존재방식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조건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신들조차도, 어느 선까지는 관습적인 가치에 얽매인 것으로 보인다.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장례를 위한 조건까지 마련해줄 것을 제우스가 내다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테네는 구혼자들의 뇌와 피가 땅바닥을 적시는 장면을 상상하며 기괴한 즐거움을 누리며, 오뒷세우스가 구혼자들의 가축들을 몰고올 것이라고 약속한다.<sup>36)</sup> 구혼자들의 몰살을 바라는 그녀의 욕구는, 트로이아에서 싸운 전사들의 관습적이고 맹목적인 가치관과 큰 차이가 없다.<sup>37)</sup> 쓰러진 구혼자들 앞에 선 오뒷세우스가 자랑 대신 인간운명의 연약함을 운위

30) Griffin 1976: 183.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는 Griffin 1980: 102; Macleod 1982: 8; Rutherford 2001: 289.

31) Di Benedetto 1994: 289-97.

32) Rutherford 2001: 285.

33) Griffin 1987: “It is the old Iliadic desire to cry out in triumph, stamping one’s own identity on one’s achievement in a cry of εὐχός.” (p. 90). Barck 1971: 17; Rutherford 1986: 160. n.79; Segal 1994: 221. 일리아스 전사들의 자랑에 대해서는 Kyriakou 2001: *passim*.

34) Rutherford 1986: 160.

35) Griffin 1978; 11; Segal 1994: 50.

36) Griffin 1986: “‘Driving away their flocks and herds’ is simply equivalent to killing them, the two actions are so automatically connected.” (p.29).

37) Murrin 2007: 510-1. cf. II. 20.313-7; 21.458-90.

할 것이라고는 아테네도 전혀 내다보지 못한 일이다.<sup>38)</sup>

물론, 인간 삶의 고통 자체는 변치 않고 남아 있다. 제우스는 지상의 모든 것들 중에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고 단언한다 (*Il.* 17.446). 아킬레우스도, 오딧세우스도 복받은 신들의 삶과 대비되는 인간 삶의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잘 알고 있다. 신들은 인간보다 아름답고,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웅들은 신들을 능가하는 배포가 담긴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sup>39)</sup>

## 7.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메로스는 자신의 서사시에서 전통적인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내고 있다. 양 시의 막바지에서, 아킬레우스와 오딧세우스의 새로운 영웅성, 휴머니티에서 비롯된 영웅성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독자들 역시 똑같은 인간조건 아래에서 관용과 연민이라는 참된 영웅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시인은 이렇게 영웅들과 독자들 사이에 놓인 간격을 메워낸다. 만일 호메로스의 독자들이 “시를 통해 단순히 즐거움과 기분전환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건에 대한 앎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sup>40)</sup> 그것은 아마도 호메로스 서사시에 내재된 휴머니티 덕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Anderson, William S. 1958. "Calypso and Elysium" *CJ* 54: 2-11.
- Austin, Norman. 1975. *Archery at the dark of the moon: poetic problems in Homer's Odyssey*. Berkeley.
- Barck, Christoper. 1971. "Menelaos bei Homer" *WS* 84: 5-28.
- Brown, Christopher G. 1996. "In the Cyclops' Cave: Revenge and Justice in Odyssey 9" *Mnemosyne* Vol. XLIX: 1-29.
- Burkert, Walter. 1955. *Zum altgriechischen Mitleidsbegriff*. Diss. Erlangen.
- Bynum, David E. 1968. "Themes of the Young hero in Serbocroatian Oral Epic Tradition" *PMLA* 83: 1296-303.
- Currie, Bruno 2006. "Homer and the Early Epic Tradition" in *Epic Interactions: Perspectives on Homer, Virgil, and the Epic Tradition Presented to Jasper Griffin by Former Pupils*

38) 호메로스의 인간에게는 통합된 자아가 없고, 자기 결정권 없이 전적으로 신들의 제어를 받는다는 입장은 Snell 2011<sup>9</sup>:13-29; Erbse1986:passim. 반대로, 호메로스의 양대 주인공의 자기결정과 책임에 대해서는 Rutherford 2001: 262, 284. 호메로스의 자아가 통합되어 있으며 고도의 자의식이 있다는 연구로는 Sharples 1983; Gaskin 1990; Sarischoulis 2008.

39) Zanker 1994: 125.

40) Macleod 1982: 7-8.

- Eds. by M.J. Clarke, B.G.F. Currie and R.O.A.M. Lyne. Oxford: 1-45.
- Di Benedetto, Vincenzo. 1994. *Nel laboratorio di Omero*. Turin.
- Edwards, Anthony T. 1985. "Achilles in the Underworld: 'Iliad, Odyssey', and 'Aethiopsis'" *GRBS* 26: 215-27.
- Erbse, Hartmut. 1986. *Untersuchungen zur Funktion der Götter im homerischen Epos*. Berlin/New York.
- Foley, John Miles. 1999. *Homer's traditional art*. University Park, PA.
- 2002 "What South Slavic Oral Epic Can-and Cannot-Tell Us about Homer" in *EPEA PTEROENTA: Beiträge zur Homerforschung. Festschrift für Wolfgang Kullmann zum 75. Geburtstag* Hrsg. von M. Reichel und A. Rengakos. Stuttgart: 53-62.
- Friedrich, Rainer. 1975. *Stilwandel im homerischen Epos: Studien zur Poetik und Theorie der epischen Gattung*. Heidelberg.
- Gaskin, Richard. 1990. "Do Homeric Heroes Make Real Decisions?" *CQ* 40: 1-15.
- Griffin, Jasper. 1976. "Homeric Pathos and Objectivity" *CQ* 26.2: 161-187.
1977. "The Epic Cycle and the Uniqueness of Homer" *JHS* 97: 39-53.
1978. "The Divine Audience and the Religion of the Iliad" *CQ* 28.1: 1-22.
1980. *Homer on life and death*. Oxford/New York.
1986. "Heroic and Unheroic Ideas in Homer" in *Chios: a conference at the Homereion in Chios*. Eds. by J. Boardman and C.E. Vaphopoulou Richardson. Oxford: 3-13.
1987. "Homer and Excess" in *Homer, beyond oral poetry: Recent trends in Homeric interpretation*. Eds. by J.M. Bremer, I.J.F. de Jong and J. Kalff. Amsterdam: 85-104.
- Güntert, Hermann. 1919. *Kalypso: Bedeutung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auf dem Gebiet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Halle/Saale.
- Kyriakou, Poulheria. 2001. "Warrior vaunts in the Iliad" *RhM* 144: 250-77.
- Lord, Albert Bates. 1991. *Epic singers and oral tradition*. Ithaca.
1995. *The singer resumes the tale*; Ed. by M. L. Lord. Ithaca
- Macleod, Colin. W. 1982. *Homer, Iliad XXIV*. Cambridge.
- Marg, Walter. 1957. *Homer über die Dichtung*. Münster/Aschendorff.
- Morrison, J. V. 1994. "Thematic Inversion in the Iliad: The Greeks under Siege" *GRBS* 35: 209-227.
- Most, Glenn W. 2003. "Anger and Pity in Homer's Iliad" in *YCS Vol. 32: Ancient Anger: Perspective from Homer to Galen*. Eds. by S.Braund and G.W.Most: 50-75.
- Murrin, Michael. 2007. "Athena and Telemachus" *IJCT* 13: 499-514.
- Parry, Milman. 1971. *The making of Homeric verse: the collected papers of Milman Parry*; Ed. by A. Parry. Oxford.
- Pucci, Pietro. 1987. *Odysseus Polytropos: Intertextual Readings in the Odyssey and the Iliad*.

- Ithaca, N.Y..
- Reinhardt, Karl. 1960. "Die Abenteuer der Odyssee" in *Tradition und Geist: gesammelte Essays zur Dichtung*. hrsg. von C. Becker. Göttingen: 47-124.
- Robert, Shenk. 1994. "Odysseus Aloof and Astray" *GB* 20: 1-25.
- Rutherford, R. B. 1986. "The Philosophy of the Odyssey" *JHS* 106: 145-62.  
1993. "From the Iliad to the Odyssey" *BICS* 38: 37-54.  
1996. *Homer* (G&R New Surveys in the Classics 26). Oxford.  
2001. "Tragic Form and Feeling in the Iliad" in *Oxford Readings in Homer's Iliad*. Ed. by D. L. Cairns. Oxford: 260-93.
- Sarischoulis, Efstratios 2008. *Schicksal, Götter und Handlungsfreiheit in den Epen Homers* (Palingenesia Bd. 92). Stuttgart.
- Segal, Charles. 1971. *The Theme of the Mutilation of the Corpse in the Iliad* (Mnemosyne bibliotheca classica batava Supplementum 17). Leiden.  
1994. *Singers, heroes, and Gods in the Odyssey*. Ithaca, N.Y./London.
- Seitz, Erich. 1950. *Die Stellung der Telemachie im Aufbau der Odyssee* Diss. Marburg.
- Sharples, Robert W. 1983. "'But Why has my spirit spoken with me thus?': Homeric Decision-Making" *G&R* 30: 1-7.
- Snell, Bruno. 2011<sup>9</sup>. *Die Entdeckung des Geistes: Studien zur Entstehung des europäischen Denkens bei den Griechen*. Göttingen.
- Stoevesandt, Magdalene 2005. *Feinde - Gegner - Opfer: Zur Darstellung der Trojaner in den Kampfszenen der Ilias* (Schweizerische Beiträge zur Altertumswissenschaft Band 30). Basel.
- Strasburger, Gisela. 1954. *Die kleinen Kämpfer der Ilias*. Diss. Frankfurt a. M.
- Taplin, Oliver. 1980. "The shield of Achilles within the Iliad" *G&R* 27: 1-21.
- Thalman, William G. 1984. *Conventions of Form and Thought in Early Greek Epic Poetry*. Baltimore.
- Vernant, Jean P. 1982. "Le refus d'Ulysse" *Le temps de la Réflexion* III: 13-8.
- Vidal-Naquet, Pierre. 1991. *Le Chasseur noir: Formes de pensées et formes de société dans le monde grec*. Paris.
- Willcock, M. M. 2002. "Menelaos in the Iliad" in *EPEA PTEROENTA: Beiträge zur Homerforschung. Festschrift für Wolfgang Kullmann zum 75. Geburtstag* Hrsg. von M. Reichel und A. Rengakos. Stuttgart: 221-9.
- Yamagata, Naoko. 1990. "Αἴσιμα παρεπιπών: a moral judgement by the poet?" *PP* 45: 420-30.
- Zanker, Graham. 1994. *The Heart of Achilles: Characterization and Personal Ethics in the Iliad*. Ann Arbor.
- 강대진 1997. "일리아스에 나타난 네 영웅의 죽음" *서양고전학연구* 11: 27-51

# 고전기 오디세우스 담론과 아테네

최혜영

## I. 들어가는 말

기원전 5세기 아테네 극작가들은 오디세우스 소재를 자주 다루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가 완고하고 자부심이 크기는 하지만, 용기와 지혜를 갖추고 동료들 아끼는 영웅적 측면이 크다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인들이 그려내는 오디세우스는 배려심 있는 인물에서 무정한 악당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타텔(Tartell)은 고전기 문학에서 오디세우스는 카멜레온 같이 다채로우며 변덕스럽다고 하였으며, 고전기 이후 점점 오디세우스는 악한 이미지로 굳어지게 된다고 한다<sup>1)</sup>.

소포클레스는 『아이아스』와 『필록테테스』에서 오디세우스를 등장시켰으며, 에우리피데스 역시 『헤카베』와 사티로스극 『키클롭스』에서 오디세우스를 등장시켰다. 그 외 단편적으로나 현전하지 않는 비극 속에서도 오디세우스는 등장한다<sup>2)</sup>.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성격이라든가 역할 등은 작품마다 다르며, 같은 작가일 경우에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총애를 받는 사려 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필록테테스』에서의 오디세우스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나온다.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가 하면, 『트로이아 여인들』이나 『헤카베』에서는 인정 없고 무자비한 냉혈한으로 그려져 있다.

호메로스의 트로이 영웅 가운데 고전기 아테네인의 초상에 가장 근접한 영웅을 꼽으라면, 아킬레우스나 아가멤논 등 보다는 오디세우스가 될 것이다. 먼저,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 여신이었던 것처럼, 오디세우스의 수호신은 아테나 여신이였다. 『오디세이아』마지막에 나오는 이타카의 올리브 나무 침대와 아테나 여신의 성스러운 램프(lukhnos)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올리브 나무와 성소의 불 이미지와도 닮았다<sup>3)</sup>. 나아가 그리스를 위한 대의를 내세우는 책략가(polytropos)로서의 오디세우스 이미지 역시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그리스를 보호한다는 아테네의 대의명분 및 지략에 겹쳐졌다. 해상 활동이 활발하였던 아테네인들에게 바다

1) H. E. Tartell, The Many Faces of Odysseus in Classical Literature, <http://www.inquiriesjournal.com/articles/1015/the-many-faces-of-odysseus-in-classical-literature>; M. K. Mason, *Odysseus: Fascinating Man and His Many Transformations* <http://www.moyak.com/papers/odysseus-hero-trojan-war.html>

2) 예컨대 아이스킬로스의 『필록테테스』와 에우리피데스의 『필록테테스』에서도 오디세우스는 등장한다. 이 두 작품은 현전하지 않고, 다만 후대의 프루사의 디오(Dionis Prusaensis)가 세 비극 작가의 필록테테스를 비교한 글을 남겨,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짐작한다. 에우리피데스의 『트로이아 여인들』에서 오디세우스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헤카베의 말을 통해서 언급된다.

3) 쿡(E. Cook)은 오디세우스와 아테네 왕 에레크테우스 스토리가 닮았음을 지적한다. E. Cook, *The Odyssey in Athe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128-70; D. Schaberg, "Travel, Geography, and the Imperial Imagination in Fifth-Century Athens and Han China," *Comparative Literature*, 51-2 (1999), 156-158.

를 등에 업은 모험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이미지는 특히 잘 어울렸다. 모험적 아테네인의 특성은 스스로도, 아테네 이웃들도 모두 인정하던 점이었다. 투키디데스의 『역사』에서 코린토스 인들은 스파르타 인들 앞에서 아테네인들과 스파르타 인들을 비교하면서 스파르타 인들과 달리 아테네인은 혁신적이고 유능하며, 도전하고 모험을 감내하며, 망설임이 없고, 타지를 돌아다니는 민족으로 묘사한다<sup>4)</sup>. 투키디데스는 다른 곳에서도 스스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면서, 아테네 쪽이 재빠르다면 스파르타는 굼뜨고, 아테네가 모험적인 반면 스파르타 쪽은 조심스러웠는데, 이러한 아테네인의 기질은 해상지배권을 누리는 데 가장 득을 보았다고 말한다<sup>5)</sup>.

이는 해외 식민지 개척과도 통한다. 로스는 ‘오디세우스의 영웅적 성격, 심리적 양태, 문화적인 역할 등은 서지중해, 북 에게 해, 흑해 지역의 식민 활동의 진정한 추진력이 되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의 모험 정신은 모든 곳의 바다와 땅 모두를 향해 나가도록 하였다’는 페리클레스 연설을 연상케 한다<sup>6)</sup>. 실제로 고전기에 아테네는 가장 활발한 식민 활동을 보이는데, 기원전 478년에서 기원전 404년 사이, 약 72개 정도의 그리스 식민지 건설 사례 가운데, 아테네가 30개 정도, 거의 절반 가까운 식민지를 세웠다<sup>7)</sup>. 그런 맥락에서 오디세우스 이미지는 아테네인의 전형에 가까우면서도 아테네의 전통적 지주 계층이나 중무장보병 계층보다는 바다를 근거로 한 해상세력, 수병이나 상공업자 계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라는 이미지를 통해 바다에서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스토스(nostos)의 영원 역시 표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극 속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당시의 아테네의 민중 선동정치, 혹은 아테네 인 자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연관성을 살피려는 것이다.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들 속에 묘사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이 갖는 의미를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sup>8)</sup> 속에서 아테네 지도적 정치가나 민중과 연관시켜

4) Thuc. 1.70. 2-4

5) Thuc. 8. 96.

6) Thuc. 2.41

7) 상고기부터 활발하게 식민 개척에 나섰던 나라들인 할키스, 코린토스, 에레트리아, 메가라, 밀레토스, 포카리아 등에 비해서, 아테네는 거의 잠잠하다가 고전기에 이르면서는 트라키아 북쪽 해변의 암피폴리스에서 이탈리아 남쪽 투리이에 이르기까지 진출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에 대해서 투키디데스는 테살리아나 보이오티아, 펠로폰네소스 반도처럼 비옥한 지역에는 서로 영토를 차지하려는 싸움이 많아 거주자의 변동이 심하였지만, 척박한 아티카 지방은 별로 탐내는 이들이 없어 원래의 사람들이 죽 늘어 살고 있다가,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서 물자가 부족해져서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으로 식민지를 세우러 나갔다고 전한다. Thuc. 1.2.

8) 비극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에 대한 비판도 많다. 예를 들어서, O. Taplin은 비극을 보는 세 종류의 오류를 말한다., myth fallacy, ritual fallacy, propaganda fallacy 등이 그것으로, 그는 역사적 접근을 ‘propaganda fallacy’에 소속시킨다. 비극에서는 동시대에 속하는 단 하나의 사람이나 사건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선전적인 것이 비밀스러운’ 큰 오류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도 아이스킬로스의 『페르시아 사람들』 만큼은 예외로 두었다. 일면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전의 오류’라고 볼 필요는 없을 듯하다. 신화적 형태로서 역사적 사건을 표출하는 것, 혹은 실제 역사의 신화화는 그리스 사상의 특징적인 면이며, 이는 특별한 것을 포괄적인 견지에서 표현하는 그리스 예술의 경향과도 통한다. 고대 그리스는 사실을 허구와 함께 은닉 혹은 표출하는 매우 능했다고 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말들은 사업이나 법정에서는 피해졌지만, 인간이나 사물의 본성과 관련한 담론에서 철학적이라고 여겨졌다(eg. Iso. 12. 240). 그리스 시가의 어떤 장르도 ‘교묘한 애매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한편, 카터(D.Carter)는 당시의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정치가들에 대해서 ‘political’이라는 단어로 축소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시인도 도시의 구성원이고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숙고하겠지만, 비극의 복잡한 것을 ‘현안의 문제’로 단순하게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현안의 문제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은 일면 타당하다. 민주정과 과두정, 주변 국가들이나 동맹국들의 동

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I 장에서는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필록테테스』, III 장에서는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 『트로이아 여인들』, 『헤카베』등을 중심으로 오디세우스 관련 담론을 살펴보겠다.

## II. 소포클레스

### 1. 소포클레스와 핀다로스의 오디세우스 비교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 나오는 아이아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아테네의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를 상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9)</sup>. 『아이아스』의 합창단은 살라미스 섬 출신의 선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 속에서 여러 차례 살라미스 섬이 언급된다<sup>10)</sup>. 그런데 고전기 그리스인들에게 살라미스라고 하였을 때 가장 쉽게 연상되었던 인물은 신화적 인물 아이아스와 역사적 인물 테미스토클레스였을 것은 틀림없다. 아이아스와 테미스토클레스는 둘 다 트로이아나 페르시아라는 오리엔트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그리스를 구원한 영웅의 모습을 지녔다. 그러나 둘 다 오만함이라는 불경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로써 아이아스는 수치심으로 자살하게 되고,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인들에 의하여 도편추방형에 처해졌다가, 결국 페르시아 영토에서 죽게 된다. 아이아스와 테미스토클레스는 특히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다고 알려졌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다. 아이아스를 테미스토클레스로 보는 것은 『아이아스』 상연이 아테네인들에게 『밀레토스의 함락』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는 리바니우스의 말 (*Declamatio* 14.20)과도 잘 부합된다. 이는 극 중 아이아스 자살이 아테네인들이 당시 잘 알고 있던 어떤 인물의 자살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작품 속에 흐르는 반 스파르타 정서도 잘 설명해준다. 당시 친 스파르타파 정치가 키몬과 달리, 테미스토클레스는 반 스파르타 진영의 주자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아스의 아들에 대한 극 중 따뜻한 시선과 배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자녀들에 대한 연민 및 자녀들의 아테네로의 귀환령과도 맞물린다. 마지막으로 이는 제 3의 배우의 부재라든가, 여러

---

향, 대중 연설가의 활약, 남성과 여성, 시민과 거류외인 노예, 윤리적 문제, 정의의 문제, 특히 눈앞의 전쟁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당시의 문제들이 녹아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많은 요소들을 다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러한 노력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 비극에 아테네 현안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O. Taplin, *Greek Tragedy in Action*, London, 2006, 165; E.D. Francis, "Greeks and Persians" *The Art of Hazard and Triumph, Ancient Persia, the Art of an Empire*, ed. D.Schmandt-Besserat, Malibu, CA: Undena Publications, 1980, 53-86, esp. 62; D.Carter, *The Politics of Greek Tragedy*, Exeter, 2007, 27. M. Vickers, *Sophocles and Alcibiad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7-9, 35에서 재인용.

9) 최혜영,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와 테미스토클레스」『서양고대사연구』46(2016), 35-67. 『아이아스』에서 나오는 아이아스가 아테네의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를 상징하였으며, 따라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가 상연된 시점은 테미스토클레스 죽음 및 그의 자살 소식이 들린 기원전 459년과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논증하려 애썼다. 참고로 그레고와르(Grégoire)는 극 중 아이아스가 아테네 정치가 알키비아데스를 상징한다고 보고, 휘트만(Whitman)은 아이아스가 아테네 정치가 키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Cf. A. F. Garvie, *Sophocles: Ajax*, Warminster: Liverpool University Press, 1998, 6 ; H. Grégoire & P. Orgels, "L:Ajax de Sophocle, Alcibiade et Sparte," *Annuaire de l'Institut de Philologie et d'histoire orientales et slaves* 13(1953), 653-63; H. Grégoire, "La Date de l'Ajax de Sophocle," *Bulletin de la Classe des Lettres* 41(1955), 187-98.

10) eg. 596 ff.; 859-860

기법에서 보이는 초기적 특징<sup>11)</sup> 등과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만약 아이아스가 테미스토클레스를 빗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극 중 오디세우스는 누구를 의미하였을까?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이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면서, 지혜로우면서도 사려 깊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가 아이아스의 매장을 금지하려는데 비해서,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설득하여 아이아스에게 적절한 매장의 예식이 행해지도록 주선한다. 이는 호메로스에게서 볼 수 없는 소포클레스의 독창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아이아스』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아테네를 상징하는 인물, 아테네 민중 혹은 아테네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겠다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의 해석에 의하면, 아이아스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죄는 하루 동안의 형벌, 즉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었다(756-757). 이를 테미스토클레스에 비유한다면, 테미스토클레스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오디세우스의 주선으로 아이아스에게 합당한 매장 의례가 행해지게 되었다는 설정은 아테네 민중 혹은 지도자들은 테미스토클레스를 한 때 추방형에 처했지만, 테미스토클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에게 영웅에 합당한 예식이 행해지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아스와 오디세우스를 소재로 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는 테베 출신 핀다로스의 글과 비교가 된다. 핀다로스는『네메아』, 『이스트미아』 등에서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처럼, 아이아스의 자살 사건 및 오디세우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sup>12)</sup>. 『네메아』 7에서 핀다로스는 호메로스의 우호적인 평가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명성은 그의 원래 가치보다 높아졌으나, 오디세우스의 지혜는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그를 폄하한다. 핀다로스는 『이스트미아』 4에서도 오디세우스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언급한다. 특히 『네메아』 8에서 아이아스는 지극히 고상한 흠잡을 곳 없는 영웅으로 그려진 반면에<sup>13)</sup> 오디세우스는 속임수에 능한 교활한 인물, 부도덕의 상징, 어둠의 화신으로 묘사되어 있다<sup>14)</sup>.

즉 호메로스적 오디세우스 모습이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는 더욱 긍정적으로 부각되었다면, 거꾸로 핀다로스의 글에서는 부정적 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그 배경에 대해서 브라운(N.O. Brown)은 기원전 446/445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체결되었던 30년 조약에 대해 불만을 느꼈던 핀다로스가 『네메아』 8에서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즉 이 글의 아이아스는 30년 조약의 체결로 아테네에 조공을 바치게 된 억울한 아이기나를 상징하며, 교활한 오이디푸스는 아이기나를 손에 넣게 된 아테네로 유비된다고 보았던 것이다<sup>16)</sup>.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는 아테네를 그리스의 구원자로 우호적으로 보았지만, 제국주의

11) G.M. Kirkwood, *A Study of Sophoclean Dram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58, 86-89, 93, 289, 293. Cf. P.J. Pinglass, *Sophocles Aja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1-10.

12) *Nem.* 7.20-30, 8.21-5; *Isth.* 4.35-9

13) 아이기나 출신 영웅에게 봉헌된 글로서 아이아스 신화가 주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네메아』 8에서는 아이아스가 미쳤다든가, 그리스 장군들을 공격했다든가, 동물 떼를 죽였다든가, 아테나 여신이 그를 벌했다든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언급 하나 없이, 고상한 영웅인 아이아스가 ‘속임을 당한’ 결과, 정의롭게 자결한 것으로 나온다.

14) 『네메아』 8. 25-34. 23

15)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는 만약 아이아스가 이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알았다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때 그의 진정성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M. K. Mason, *Odysseus: Fascinating Man and His Many Transformations*

16) N.O. Brown, “Pindar, Sophocles, and the Thirty Years’ Peace,”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82(1951), pp. 1-28. 나아가서 이러한 핀다로스의 글에 대한 아테네 측의 대답이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필자는 핀다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서는 소포클

적 경향이 커지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핀다로스가 오디세우스를 강하게 비판하였던 것은 오디세우스와 아테네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2. 필록테테스와 오디세우스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에서 그려진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소포클레스 말엽에 쓰여진 『필록테테스』<sup>17)</sup>의 오디세우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필록테테스』에서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매우 간교하며 공의를 위한답시고,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다. 오디세우스의 교활함은 아킬레우스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의 성품 및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잘 드러난다. 네오프톨레모스는 거짓말을 이용해서 필록테테스의 활을 뺏으라는 오디세우스에게, 간계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의 본성과 다르며(87), 비열한 방법으로 이기느니 옳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싶으며(94), 거짓말은 창피한 것이며(108), 기만으로 얻은 성공은 치욕적인 것(842)이며, 옳은 것은 지혜보다 나은 것(1245)이라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서 오디세우스는 거짓말이 우리를 구해준다면 망설임 필요 없이 해야 하며,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는 까다롭게 굴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달콤한 전리품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잠시 파렴치해지더라도 괜찮은 것이다(81). 이 극의 주인공 필록테테스는 이를 두고 오디세우스가 네오프톨레모스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디세우스의 사악한 마음이 젊은 네오프톨레모스의 본성을 그려쳐서 나쁜 술수에 능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이다(1013)

소포클레스에 등장하는 필록테테스가 당시 아테네 정치가 알키비아데스를 의미한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이 극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보는 시도를 꺼려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 견해는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상당수 학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예컨대 제브(R.C. Jebb)는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귀환할 수 있도록 소포클레스가 이 주제를 선택했다는 설을 옹호한다<sup>18)</sup>. 칸포라(L. Canfora)도 필록테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비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비는 소포클레스 스스로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논쟁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비커(M. Vickers)는 필록테테스를 장성한 알키비아데스로, 네오프톨레모스를 젊은 알키비아데스로 읽는다<sup>19)</sup>.

---

레스의 아이아스가 먼저 상연되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핀다로스의 『네메아』 8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17) 여기서 오디세우스는 그리스군의 대사로, 필록테테스와 그의 활을 가지고 가야하는 임무를 맡는다. 트로이아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이기기 위해서는 필록테테스의 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헬레노스의 예언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는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함께 필록테테스가 버려져 있는 섬 렘노스로 간다. 그는 네오프톨레모스에게 말로서 그를 속여서라도 설득할 것을 충고한다. 오디세우스의 간계에 따라 처음에는 필록테테스를 속여 활을 손에 넣었던 네오프톨레모스이지만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활을 그에게 돌려주려 하고, 필록테테스는 네오프톨레모스에게 너의 성품과 태생이 아킬레우스의 아들임을 증명했다고 말한다. 결국 헤라클레스의 등장으로 필록테테스는 이들과 함께 트로이아 전장으로 떠난다. 이로써 기만적 술수가 아니라 적절한 설득과 신의 등장이야말로 가장 좋은 최상책임이 드러난다. 오디세우스의 술책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필록테테스는 네오프톨레모스와 헤라클레스의 개입으로 결국 트로이아로 가게 된다.

18) R.C. Jebb, *Sophocles, the Plays and Fragm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96, xi-xli

19) 혹은 필록테테스를 고난당하는 아테네 사람의 이상화로 본다든가(레노르망(C. Lenormant), “Du Philoctète de Sophocle” *Le Correspondant* 1855, 6), 혹은 나이든 소포클레스 자신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E. Turolla, *Saggio sulla poesia di Socle*(Bari: G. Laterza, 1948), 174-9. 모두 M. Vickers, *Sophocles and Alcibiades*, Cornell Univ. Ithaca, 2009, 59-81에서 재인용. 필록테테스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이들 극중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반의 상황과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록테테스』가 상연되었던 시기인 기원전 409년의 아테네 상황은 점차 패전에 가까워지던 혼란기였다. 몇 해 전인 기원전 412/411년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이 일시 무너지기까지 하였다. 400인 체제가 성립되어 약 4개월 동안 존재하다가, 기원전 411년 9월에는 5000인 체제로 바뀌었던 것이다<sup>20</sup>). 그러다가 『필록테테스』가 상연되기 일 년여 전부터는 알키비아데스의 활약으로 키지쿠스 전투 등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민주정으로 복귀하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은, 안으로는 400인 과두 체제와 선동적인 민주 체제 및 다수의 시코판테스 아래서 갈팡질팡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에게 해에까지 진출하게 된 스파르타 군의 위협과 페르시아 측의 자금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소포클레스는 처음에는 400인 과두 체제 성립에 표를 던졌으나, 이에 실망하고 곧 등을 돌렸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소포클레스를 포함한 상당수 지식인들은 위협적 과두정 아래서도, 또 선동적 민주정 아래서도 환멸을 느끼면서 커져가던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아테네 생존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였을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의 자금이 승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페르시아의 자금줄을 끌어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알키비아데스<sup>22</sup>)에게 아테네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자 하였던 듯하다. 실제로 알키비아데스는 기원전 411/410년 5000인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고<sup>23</sup>),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기원전 407년 아테네인의 환호 속에 귀환하고, 민회에서 총 사령관(strategos autokrator)으로 선출되게 된다<sup>24</sup>).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는 이러한 와중인 기원전 409년 상연되었던 것이다.

필록테테스가 알키비아데스라면, 그가 소유한 헤라클레스의 활, 그리스의 승전을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활(toxon)은 무엇이였을까? 헤라클레스의 활은 텍스트에서 24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웨일리(P. Whaley)는 활은 이 극의 ‘네 번째 morale’으로서, 항상 변화하는 인간적인 인물들에 대조되는 객관적이고 불변한 상징으로 해석하였다<sup>25</sup>). 그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매우 추상적인 해석이라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헤라클레스의 활은 페르시아의 자금줄이 아닌가 한다. 아테네 민중들이 몇 해 전인 기원전 412년 민주정을 포기하고 400인 과두체제의 성립을 목인하였던 것도 민주정을 포기해야 페르시아의 도움, 즉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과두파의 설득과 위협 때문이었으며<sup>26</sup>), 앞에서 보았듯이,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인들의 환심을 사서 아테네로 되돌아오기 위하여 거듭 주장하였던 것도

를 알키비아데스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들도 물론 있다. eg. M.H. Jameson, “Politics and the Philoctetes,” *Classical Philology* 51.4 (1956), 220.

20) 테라메네스가 주도하였던 5000인 체제는 중앙병 과두정 중심 체제로, 테테스 계급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의회 참석도, 투표도, 직책도 못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R. Gallucci, *Relations between Athens and its Fleet, Text and Tradition*, eds. R. Mellor & L. Tritle. Regina books, claremont, California, 183

21) Aristoteles, *Rhet.* 3.18, 1419a; M.H. Jameson, “Politics and the Philoctetes,” *Classical Philology* 51.4 (1956), 217-218.

22) Thuc. 8. 47; 8.53.

23) Thuc. 8.47; 76.7; 86.4-7; 97.3; Plur. *Alc.* 27.1.33; Nepos, *Alc.* 5.4; D. Cartwright, *A Historical Commentary on Thucydide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301

24) Plut. *Alcibiades*, 33

25) P. Whaley, “The Role of the Bow in the Philoctetes of Sophocles,” *The American Journal of Philology*, 81.4 (1960), 414

26) Thuc. 8.53 ff.

자신이야말로 페르시아의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호언장담이었다는 점에서 그 개인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몇 년 뒤인 기원전 405년 상연되었던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에서도 알키비아데스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작품의 클라이맥스에서 디오니소스 신은 아테네의 구원을 위하여 더 유용한 조언을 하는 시인을 지상에 데려갈 것이라 하면서, 죽어 저승에 와있는 아이스킬로스와 에우리피데스에게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sup>27)</sup>. 알키비아데스를 배척한 에우리피데스보다 알키비아데스를 받아들일 것을 조언한 아이스킬로스가 결국은 아테네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된다. 코로스는 아이스킬로스에게 아테네로 되돌아가서 훌륭한 생각들로 도시를 구하고, 지각없는 자들을 혼내주라고 말한다<sup>28)</sup>.

이 극에서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와 서로 존경하며 옥좌도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나온다(787-794). 흥미로운 점은 알키비아데스 관련 질문이 소포클레스에게는 던져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이는 소포클레스가 이미 몇 해 전인 기원전 409년 바로 이 『필록테테스』를 통해 필록테테스, 즉 알키비아데스를 데려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따로 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만일 필록테테스가 알키비아데스에 비견할 수 있다면, 오디세우스는 누구에 빗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필록테테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위의 주장들의 말’을 듣고 행한다고 거듭 반복하는 말에 주목한다. 오디세우스는 필록테테스를 렘노스 섬에 남겨둔 것도(6), 지금 필록테테스의 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 가고자 하는 것도 위 주장들의 명령 때문(925)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필록테테스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필록테테스는 자기 소유물을 빼앗아간 오디세우스가 ‘악당 중의 악당’이지만, 그러나 그를 탓하기 보다는 그의 윗선, 통치자들을 더 탓하고 싶다고 말한다.

군대도 도시와 같아서 전적으로 그 지도자들 하기 나름이고,

무도한 짓을 하는 자들이 악인이 되는 것은 그 선생들 가르침 때문 (383 ff. )....

필록테테스는 오디세우스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그의 상급자, 즉 오디세우스를 움직이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선생을 향하여 더 큰 비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의 주장, 오디세우스의 통치자, 선생은 누구일까?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가멤논 등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가멤논을 오디세우스의 지도자, 선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여기서 오디세우스를 다시 아테네 민중에, 잘못된 지도자는 당시 아테네의 ‘선동적’ 민중 정치가들에 빗대었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맥락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이아스』에서 사려 깊게 보이던 오디세우스가 소포클레스가 인생 말엽에 쓴 『필록테테스』에서 이렇게 간교하게 그려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혹자는 기원전 5세기 오디세우스의 지혜가 소피스트의 기만적 지혜에 겹쳐짐으로써 부정적으로 변해갔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한 시각도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두드러졌던 민중 선동정치거나 험담가(sycophantes)들의 활약,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등등일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테네 뿐만 아니라 케르키라 등, 민주정과 과두정 사이에 내분이 있었던 곳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27) Aristophanes, *Batr.* 1418-1423.

28) Aristophanes, *Batr.* 1501-1503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폭력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대중의 기질을 변화시켰다고 고찰한 바 있다<sup>29)</sup>. 내란이 시작된 도시들은 교활한 공격과 전례 없는 보복에 능하게 되며, 단어의 일상적 의미도 바뀌어서, 무모한 용기를 용감함으로, 신중함은 비겁함으로, 절제는 소심함으로, 지성은 무기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그는 해부한다<sup>30)</sup>. 내부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정책도 더욱 선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냉혹해져갈 따름이었을 것이다<sup>31)</sup>.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러한 상황이 악화일로로 가던 당시, 데마고고스들의 두드러진 활동과 이에 흔들리던 아테네 민중의 부정적인 면은 소포클레스에게 『아이아스』 상연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면은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직설적으로 지적되고 있거니와, 에우리피데스의 작품 속에서도 은유적인 형태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II. 에우리피데스

### 1. 『키클롭스』와 『트로이아 여인들』

에우리피데스는 사티로스극 『키클롭스』를 남겼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키클롭스 이야기와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와의 유사성은 잘 밝혀져 있는 가운데, 오디세우스의 모습 역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에서 호메로스와의 다른 설정들도 발견된다<sup>32)</sup>. 기존 신화를 새롭게 각색하고 그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관심을 끄는데, 여기서 저자의 중요한 의도나 목적을 발견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의 서술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하나는 극 배경이 시칠리아의 아이트나 화산 근처라는 점이 여러 번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키클롭스의 아버지가 포세이돈 신이라는 점이 거듭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키클롭스가 포세이돈 신의 외눈박이 아들이라는 서술은 작품 곳곳에서 거듭 나온다<sup>33)</sup>. 아노트(P.D. Arnott)나 헌터(R. Hunter) 등이 이미 지적하였듯이<sup>34)</sup>, 호메로스의 작품에서는 제우스와 아테나 신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반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포세이돈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시칠리아라는 배경과 포세이돈 신이 괴물의 아버지로 부각되는 점은 기원전 415년 시작되었던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sup>35)</sup>.

29) Thuc. 3. 82.2

30) 다른 이를 공격하여 성공하는 자는 영리한 자로,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 생각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사주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악이 헬라스 세계에 출현하게 되었으며, 관대함에서 비롯된 울곧음은 비웃음을 당하고 사라지는 한편, 반목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Thuc. 3. 82.3 ~3.83.

31) 당시 미틸리니 사건을 둘러싼 아테네 내부에서의 논의 및 정책 등에서도 일단의 정치가의 연설, 선동, 활약 등에 의해서 민중의 판단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을 잘 읽을 수 있으며, 멜로스 회담에서도 냉혹한 정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32) 이 가운데는 무대에 올려져야 할 필요성으로 인한 차이성,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에서는 여러 날에 걸쳐서 사건이 진행되지만, 에우리피데스의 극에서는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사티로스 극이라는 특성상 코러스가 사티로스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티로스 극으로의 변신에 따른 극적 기법이나 장치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3) Eurip. *Cyclops*, 21, 231, 263~265, 290, 318, 343-344, 423

34) P.D. Arnott, *The Overworked Playwright A Study in Euripides' Cyclops*, 1961. 166; R. Hunter, "Readings of Homer: Euripides' Cyclops," *Classical Moments in Classical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63 ff.

35) Hae-Young Choi, "Dating the Cyclops of Euripides," *The Journal of Greco-Roman*

그런데 이가 정말 당시 아테네의 시칠리아 원정과 관련이 있다면, 시칠리아에서 키클롭스를 만나 고난을 겪는 오디세우스와 그의 선원은 아테네인, 즉 아테네 삼단노선 지휘관 및 수병들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애국적인 기질을 지님과 동시에, 해상 세력 및 이에 기반을 둔 아테네 제국주의적 경향에는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헛수가 더해갈수록 아테네 안에서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 및 농민 세력과 수병 등 바다를 업으로 삼은 해상 세력과의 갈등은 날로 심해갔는데, 에우리피데스는 반 해상 세력의 대변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해상 세력을 대변하는 포세이돈 신에 대한 반감으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이 『히폴리토스』, 『에레크테우스』<sup>36)</sup> 등이기도 하다.

해상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은 포세이돈 신에 대한 폄하에서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수호 여신인 아테나의 태도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기원전 415년, 아마도 『키클롭스』와 비슷한 시기에 상연된 『트로이아 여인들』은, 포세이돈 신이 등장하여 자신이 수호하였던<sup>37)</sup> 트로이아의 멸망과 그에 따른 참상을 말하고, 아테나 여신이 나타나서 트로이아를 멸망시킨 그리스인을 벌주자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즉 포세이돈 신과 아테나 여신은 예전에는 서로 적대관계였지만<sup>38)</sup>, 그리스인을 혼내주자는 데서 서로 동의하는데, 그 재앙지는 바로 바다가 될 것이다<sup>38)</sup>. 많은 학자들은 에우리피데스가 이 작품에서 그 전 해에 벌어진 멜로스 섬의 학살이나 아테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전쟁의 참상, 전쟁은 결국은 모두의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필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상연된 해는 아테네의 시칠리아 대원정이 시작되었던 해이므로, 에우리피데스는 『키클롭스』를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시칠리아 원정이 결국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려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트로이아 여인들』에서 오디세우스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불한당으로 그려진다. 막 멸망당한 트로이아 여왕 헤카베는 자신이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로 노예로 붙들려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가장 나쁜 제비에 뽑혔다면, 오디세우스야말로 인간과 신의 법과 올바른 것을 무시하고 나쁜 것을 숭상하며, 바른 것을 굽게, 진실을 거짓말로, 우정을 악의로 바꾸는 두 갈래 난 혀를 가진 악한 괴물이라고 부르짖는다<sup>39)</sup>. 헤카베가 묘사하는 이러한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당시 평화를 원하던 이들의 눈에 비추어진 주전파 민중 정치가 및 제국주의적 해상세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하다. 헤카베의 딸이자 트로이아의 공주 카산드라의 말을 통해서도 오디세우스의 암울한 미래가 예언되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지금은 트로이아의 멸망을 자신의 치부의 기회로 보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고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바다 위에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온갖 재앙을 만

---

Studies 54-3(2015), 41-49.

36) 기원전 423/422년에 상연되었던 『에레크테우스』는 단편적으로 전하여져서 전체 내용 전개나 구조가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포세이돈 신에 대한 비판이다. 아테네의 수호신 자리를 얻지 못하여서 화가 난 포세이돈이 지진으로 아테네를 뒤덮으려하지만 아테나 여신이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이다. 포세이돈이 아테네에게 이익이 되는 신이 아니라 아테네를 망치려하는 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혜영, 「아테네 해상제국과 신들의 경쟁」 『지중해지역연구』16-4(2014), 121-126.

37) 이는 호메로스와 다른 설정이다. 호메로스 작품에서 포세이돈은 대체로 트로이에 반대하는 신들의 진영에 속하기 때문이다.

38) E. G. O'Neill, Jr. "The Prologue of the Troades of Euripides,"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72(1941), pp. 288-320.

39) Eurip. *Troades*, 281 ff.

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sup>40)</sup>.

실제로 에우리피데스의 극은 예언처럼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원정을 부추기는 세력의 선전 속에 영광의 승리를 거두고 막대한 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오르게 했던<sup>41)</sup> 시칠리아 원정은 그야말로 대재앙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이 죽어갔듯이, 시칠리아 원정 실패로 포로로 잡혔던 아테네인들도 채석장에 갇혀서 죽어갔으며<sup>42)</sup>, 이 이후 아테네는 결코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었을 만큼의 타격을 입고, 제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 2. <헤카베>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에서 오디세우스가 지혜롭고 동료들을 사랑하는 호메로스적 오디세우스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트로이아 여인들』에서는 이익을 탐하고 말에 능한 교활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면, 기원전 424년 상연되었던 에우리피데스의 『헤카베』에서의 오디세우스는 단 하나의 장점도 없는 냉혈한으로 나타난다. 오디세우스는 이전에 트로이아로 정탐을 갔을 무렵 발각되어 죽을 뻔한 상황에서 트로이아 여왕 헤카베의 도움으로 살아났건만, 지금 그녀가 빠져 있는 절대적 곤경에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헤카베에게서 그녀의 딸 폴릭세네를 빼앗아 죽이는 일등공신으로 나온다. 헤카베의 고통과 두려움, 애원을 깡그리 무시하는 오디세우스에게서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조금의 연민이나 이해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스탠포드(W.B. Stanford)는 에우리피데스는 오디세우스를 가장 나쁘게 묘사하였다고 말한바 있다<sup>43)</sup>

그런데 이 작품에서 오디세우스가 ‘민중 선동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은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서 매우 흥미롭다. 극 중 코로스는 헤카베에게 헤카베의 딸 폴릭세네를 아킬레우스의 무덤에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민중 선동가’ 오디세우스 때문으로 설명한다. 폴릭세네의 희생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팽팽할 무렵, 오디세우스가 군대를 설득하여 폴릭세네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

40) *Troades*, 430 ff. 에우리피데스 자신도 오디세우스의 고난을 갑자기 언급하는 것이 조금 뜬금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444). 오디세우스의 장래 죽음을 언급한 비극은 다음과 같다. 소포클레스의 『상처입은 오디세우스 *Odysseus Akanthoplēx*』에서 오디세우스는 그의 아들 텔레고누스에 의하여 ‘노랑가오리’ 독이 묻은 창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텔레고누스는 오디세우스와 키르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아이스킬로스의 『영혼을 이끄는 이들 *Psychagogoi*』에서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디세우스가 무서운 샘으로 여행했는데(fr. 273, 273a.2; cf. 276), 그 곳은 영매술사의 도움으로(fr. 273, 273a) 오디세우스가 테이레시아스와 접촉하는데,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다(fr. 275). 한 ‘왜가리’의 똥이 너를 덮고, 그 가시에 의하여 오디세우스의 늑고 벗겨진 머리가 썩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약간의 이상한 표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다. 오디세이아 11권이 이에 영감을 주었으리라 보이면서도,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보다도 아이스킬로스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죽음은 훨씬 덜 영웅적으로 묘사된다.

41) Thuc. 6.24. ‘모든 이가 똑같이 원정의 꿈에 들렸다. 장로들은 원정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큰 세력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젊은이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에 찼으며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많은 군중과 병사들은 시칠리아 정복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싶어 하였다. 사람들의 과욕을 깨닫고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하면 매국노같이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다’.

42) Thuc. 7.87; cf. *Od.* 9.329-30.

43) W.B. Stanford and J.V. Luce, *The Quest for Ulysses*, London: Phaidon Press, 1974, 141.

거짓말장이 민중선동가(δημοχαριστής)인 라에르테스의 아들(즉 오디세우스)이 군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31 ff

코로스에 이어서 등장한 오디세우스를 만난 헤카베는 선행을 해코지로 갚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중 연설가로서의 명예만 추구하는 그대들,  
참으로 배은망덕한 부류들!  
민중의 호감을 사는 말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쉽게 해치는  
그대 같은 이들을 차라리 알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251 ff.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이 극의 배경은 트로이아 전장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아테네의 현실을 빗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오디세우스의 모습에서 당시의 민중 연설가, 데마고고스의 모습이 겹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헤카베가 아가멤논에게 하는 말에서도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의 아테네의 불안한 민주정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돈의 노예 아니면 필연의 노예이고  
여론이나 사람이 만든 법들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군요  
당신이 불안해하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니  
그런 염려에서 당신을 풀려나게 해 주겠습니다... 865 ff.

『헤카베』가 상연되었던 기원전 424년은 기원전 431년 시작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다. 기원전 425년에는 스파르타 전투에서 스파르타에 승리하는 한편, 424년의 델리움 전투에서는 테바이에 패배하는 등, 숨 가쁘게 전쟁이 전개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평화에 대한 갈망도 커져가 기원전 423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 평화협상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테네에는 민중 연설가 클레온이 주전파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스파르타에서도 호전적인 브라시다스 장군이 트라케 지방 암피폴리스까지 진출하는 등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도 맹활약하던 가운데 있었다. 에우리피데스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민중 정치가 및 이에 솔깃해하는 민중을 오디세우스에 비교하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아테네 비극을 중심으로 고전기 문헌에 나오는 오디세우스 관련 담론을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살펴보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에 아테네인들의 이미지가 투영되었으며, 이가 고전기 여러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녹아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실제로 아테네인과 오디세우스 이미지는 고전기에 여러 면에서 겹치는 바가 있었다. 오디세우스나 아테네의 수호신은 같은 아테나 여신이었으며, 그리스를 위한 대의를 내세우는 지혜로운 책략가(polytropos), 해상 모험 활동이나 해외 식민지 개척의 주도자라는 면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오디세우스 이미지는 아테네의 전통적 토지 소유자나 중무장보병

계층보다는 바다를 근거로 한 해상세력, 수병이나 상공업자 계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키클롭스』와 『트로이아 여인들』에서는 오디세우스 혹은 그의 동료들이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려는 아테네인으로 비유되고 있으며, 소포클레스의 『필록테테스』나 에우리피데스의 『헤카베』 등에서 오디세우스는 선동정치가의 영향을 받는 교활한 민중의 이미지와 겹쳐져 있다. 소포클레스의 경우에, 초기의 작품인 『아이아스』에서는 오디세우스, 즉 아테네 지도자나 민중에 대한 긍정적 신뢰가 두드러지는 한편, 말기의 작품인 『필록테테스』에 이르면 이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겪게 된 현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비판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보인다. 에우리피데스의 경우, 아테네 해상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평소의 비판 의식이 오디세우스가 겪게 될 고난을 강조한다든가, 최고의 악당으로 그려내게끔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아테네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던 핀다로스의 오디세우스 담론과도 통하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확실하게 증명하기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디세우스를 고전기 아테네인, 아테네 민중, 아테네 민중 정치가라는 렌즈를 끼고 읽으면, 오디세우스 관련 이야기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에서, 더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트로이아 전쟁과 범그리스주의

-이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김현(서울대 인문학연구원)

## 1.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적은 그리스 고전기에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와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이후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벌어진 수십년 간의 그리스 내전과 페르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 그리고 필리포스가 주도한 마케도니아의 군사적 팽창과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에 이르는 고전기에 부각된 '범그리스주의'(panhellenism)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기원전 380년에 『시민대축전에 부쳐』(Panegyricus)를 발표하고 기원전 342년에 『전 아테네인 축제에 부쳐』를 발표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에서 기원전 338년에 편지를 보내기까지 평생 동안 꾸준히 '범그리스주의'를 주창했던 이소크라테스의 글의 중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스 고전기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부자가 주도한 두 차례 대규모의 침공과 이를 막아낸 승리의 역사로 시작한다. 아테네가 중심이 된 마라톤 전투(기원전 490년)의 승리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테르모필라이 전투의 혈전, 그리고 아테네 해군이 이끈 살라미스 해전(기원전 480년)의 승리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 정치적 군사적 자신감과 함께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그렇다고 페르시아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공세적인 침략은 기원전 449년까지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는 계속 그리스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의 식민도시와 본토의 도시국가들에 위협이 되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물리친 그리스가 내부적으로 호의적인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을 심화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갈등의 절정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스파르타는 효율적으로 아테네를 제압하지 못하고, 전체 그리스 세계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통합해 나가지 못했다. 그 사이 테베와 아테네, 코린토스와 아르고스는 연합하여 스파르타와 전쟁(기원전 395-387년 코린토스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이 네 도시의 연맹은 이전의 적이었던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았던 것이다. 이 사이 아테네가 해군력을 회복하고 지난날의 '아테네 제국'의 힘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 한 페르시아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파르타의 해군을 박살냈지만, 아테네를 견제하기 위해 스파르타를 지원했다. 군사적 외교적 배신이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실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스파르타는 다시 전쟁의 열세를 극복하고 그리스 내부의 주도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페르시아와 결탁했고, 여러 식민도시의 관리를 페르시아에 팔아먹듯 넘기면서 내부의 경쟁세력을 제압할 힘을 빌려오는 일

까지 서슴지 않았다.(기원전 387년 이른바 ‘왕의 협정’이라 불리는 안탈키다스 협정) 하지만 스파르타는 테베에게 기원전 371년의 레욱트라 전투에서 패하고, 362년에 만타니아 전투에서 패하면서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

한마디로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는 도시국가들 사이의 격렬한 갈등과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페르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농단에 놀아나던 시기였다. 이를 지켜보면 그리스의 지식인들 가운데에는 그리스의 내분과 갈등, 전쟁을 종식시키고 페르시아의 위협을 없앨 방법을 고민하며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를 대표하는 범그리스주의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피력하는 가운데, 트로이아 전쟁을 시의적절하게 재해석하여 그리스인들에게, 각 도시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옛날 조상들이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고 대규모 연합군을 구성하여 바다를 건너가 트로이아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헬레네를 납치한 파리스의 무례함을 응징하고, 트로이아를 점령하고 파괴하여 ‘여인 납치’와 약탈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던 것처럼, 그리스인들이 다시 뭉쳐서 페르시아를 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원전 342년에 발표하기 위해 작성된 『전 아테네인 축제에 부쳐』에서 그는 아가멤논을 재조명하며, 기원전 4세기 그리스가 직면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맞춤형은 지도자의 전형으로 소개한다. 한 마디로 그는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제2의 아가멤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리스 고전기에 그리스가 직면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범그리스주의’의 면모를 여러 문헌 자료들을 통해 검토한 후에, 그 맥락 안에서 이소크라테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리한 후에, 그가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와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비판하며 계승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그가 아가멤논을 시대가 요청하는 지도상의 원형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그가 염두에 둔 당대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를 그의 편지를 통해 살펴보고 한다. 결론적으로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한 이소크라테스와 그의 이념에 맞게 동방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그리스 역사 연표

연도(기원전)	문명/시기 구분	주요 사건
3,000-1,000경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뮈케네의 문명 / 트로이아 전쟁(약 기원전 1,200년경)	
1,000-900년경	암흑기(Dark Age)	뮈케네 문명 파괴됨, 인구 감소와 농업 퇴조
900-750년경		인구와 농업의 회복, 무역과 식민지 개척의 시작
776년		제1회 올림피아제전
750-700년경	상고기 (Archaic Age)	알파벳의 발명,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서사시, 도시국가의 등장
750-550년경		지중해 지역 전역에 그리스 식민지 건설, 중무장 보병, 노예제
730-710년경		스파르타 메세니아 1차 침공
640-630년경		스파르타 메세니아 2차 침공, 아테네에 초기 민주정 등장
632-631년		아테네 킬론의 쿠데타, 드라콘의 입법
594년경		솔론의 입법
546년경		페이시스트라토스, 아테네 참주가 됨
508년		클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 민주개혁 시작

499년 이후	5세기 고전기 (Classical Age)	이오니아 반란, 페르시아 전쟁 개시
490년		다레이오스, 아테네를 향해 군대 파견, 마라톤 전투
483년		아테네 대규모 은광 발견, 데미스토클레스 주도로 해군력 강화
480년		크세르크세스 그리스 침공, 테르모필라이 전투, 살라미스 해전
479년		보이오티아의 플라타이아이와 아나톨리아 사이의 미칼레 전투
477년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패권을 차지
454년		이집트에서 델로스 동맹의 군대가 페르시아에 대패, 델로스 동맹 재물창고 아테네로 이동, 아테네의 제국적 행태
446-445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30년 평화협정 체결, 지속적인 양국 간의 교전 일시 중지
433-432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신경전, 코린토스와 메가라 문제
431년		스파르타의 아테네 침공, 아테네 해군의 펠로폰네소스 공격, 429년 페르클레스 사망
422년		클레온(A)과 브라시다스(S), 암피폴리스 전투에서 사망
421년		니키아스 평화 협정
404년		아테네, 스파르타 휘산드로스 장군에게 패배, 스파르타 승리
404-403년		아테네 30인 참주정치, 곧이어 민주정 회복
395-387년	4세기 고전기 (Classical Age)	코린토스 전쟁(스파르타 대 테베, 코린토스, 아테네, 아르고스)
387/6년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사이의 왕의 협정(안탈키다스 협정)
377년		아테네 해상동맹 회복
371년		스파르타, 보이오티아의 레욱트라에서 테베 동맹군에게 패배
362년		스파르타, 에파미노다스가 이끄는 테베에게 결정적인 패배
359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왕위에 오름
357-355년		아테네, 동맹국들 사이의 내전으로 해군력이 와해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 필리포스 2세가 테베와 아테네 중심의 그리 스 동맹군을 격파하고 코린토스 동맹 결성
336년		필리포스 2세 피살, 알렉산드로스 왕위 등극
334년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통합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개시, 그 라니코스 전투의 승리
333년		아나톨리아, 남동부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승리
332-331년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정복,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
330년		페르세폴리스 정복
329-326년		동진을 계속, 박트리아 정복, 인도까지 진출, 항명과 회군
323년	바빌론에서 알렉산드로스 사망, 헬레니즘 시대 개막.	
306-304년	헬레니즘 시대 (Hellenistic Age)	왕국의 분열 본격화,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214-205년		로마의 본격적인 팽창,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집트, 근동 정복
30/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패배, 클레오파트라 사망

## 2. 고전기의 범그리스주의

이소크라테스가 ‘범그리스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것은 기원전 380년에 발표한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였다. 그런데 이 연설문의 작성 자체는 이미 39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성 기간 10년 동안의 그리스 상황은 갈등의 농단의 시기였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스파르타에 대해 테베 중심의 연맹국(코린토스, 아테네, 아르고스)이 전쟁을 벌였는데, 이 갈등의 와중에 페르시아는 이쪽저쪽으로 붙어 다니면서 그리스 내부의 역학관계에 농단을 부리고 있던 시기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치적 의견으로 범그리스주의를 내놓은 것이다. 그는 연설의 첫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외쳤다. “이제 이방인(=페르시아인)을 상대로는 전쟁을 하되, 우리 자신들은 ‘한마음 한뜻’(homonoia)이 될 것을 제안하려고 합니다.”(3)

이런 식의 주장은 이소크라테스의 발명품은 아니다. 이소크라테스 자신도 알고 있듯이, 자신의 시대 이전의 대표적인 지식인들, 즉 소피스트들도 그런 주장을 했다. “물론 저는 자칭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런 말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3) 범그리스주의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꼽히는 소피스트는 5세기에 활동했던 고르기아스와 5-4세기에 걸쳐 활동하던 법정연설문 작성가인 튀시아스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우리 자신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완전히 풀어 버리고 그것을 그 이방인<sup>1)</sup>에게로 돌려야 한다고 훈계를 하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부터 생겨난 불행들과 그를 치는 원정에서 생겨날 이점들을 자세하게 열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15) 이소크라테스는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비전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던 것이다.

아주 멀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의 주장의 짝은 이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를 모욕하고 전쟁터에 물러나게 한 아가멤논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로 뜻을 같이 한다면’(es ge mian bouleusomen), 그 이후엔 더 이상 트로이아 인들에게 재앙은 지체가 없을 것이요, 암, 잠시도 없을 것이요.”(II.379-380) 내부의 갈등과 싸움, 분열을 수습하고 하나로 힘을 합쳐 적과 싸운다면 승리하리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은 아킬레우스의 참전과 죽음, 오뒷세우스의 트로이아 목마 작전 등의 과정을 통해 결국 이루어졌다. 물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아가멤논에 의해 주도된 이 전설적인 전쟁의 승리담과 그리스인들이 역사로서 공유하는 기억은 페르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문화적 힘이 되었던 것이다.

트로이아 전쟁을 노래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가 문서화되고 인문교양 교재로서 권위를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던 시기를 페르시아 전쟁 이후인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고전기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sup>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정치적 군사적인 이유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sup>3)</sup> 그리스인들이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아킬레우스와 오뒷세우스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날 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워 불멸의 명성을 얻는 것이 반드시 죽어야 할 인간에게 얼마나 처절하게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시켜야만 했던 것이다. 아이스퀼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기원전 5세기 그리스 고전기의 작가들이 트로이아 전쟁의 일화를 아테네 시민들이 모두 모인 디오니소스 극장의 비극 무대에 올려놓았던 것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4)</sup>

1) 페르시아의 왕 아르탁세르크세스(기원전 404-359)를 가리킨다.  
 2) 이태수,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 『서양고전학연구』 제50집, 2013, pp. 5-32 중 pp. 6-8.  
 3) 이후 에우리피데스의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의 한 구절을 다루는 부분까지의 내용은 줄고, 201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45-77의 내용에서 일부(pp. 57-63)을 수정보완해서 새롭게 정리한 내용이다.  
 4) 기원전 4세기 중엽에 동방원정을 감행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는 그와 같은 문화적 취향의 정치적 이념화를 보여준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창과 칼뿐만 아니라 트로이아의 전사들의 무용담으로 무장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킬레우스’라고 불렀고 아킬레우스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삼았으며 동방원정의 의미를 그에게서 찾았다. 기원전 334년에 코린토스에서 그리스인들의 회의가 열

그렇지만, 범그리스주의의 이념이 본격화된 것은 페르시아전쟁 이후로 보는 것이 좋다.<sup>5)</sup> 서로 흩어져 싸우던 그리스인들이 공동의 거대한 적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들이 같은 민족으로 뭉쳐야만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각한 이후부터이다.<sup>6)</sup> 범그리스주의가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것이었으므로 그리스의 하나 됨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던 관념이었고, 페르시아를 공세적으로 치자는 것도 역시, 일단은 고통스러웠던 전쟁의 역사적 경험을 미래에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나오는 생존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페르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킨 플라타이아 전투(기원전 478년)의 승리를 노래한 시모니데스(기원전 556-468?)의 한 구절에서 이미, 웨스트(M. L. West)가 복원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동방원정을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레스는] [새로운] 연합군을 완성하여 [메디아인들 (=페르시아 인들)을] 아시아에서 몰아낼 것이며, [제우스는 아테네에게 나중에] 고개를 끄덕여주었다네.”<sup>7)</sup> 페르시아에 대한 공세적인 의미의 범그리스주의는 기원전 5세기부터 꾸준히 성장하였다.

기원전 466년 팜필리아 에우뤼메돈 강에서 동방의 세력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키몬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재개하기 위해 스파르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의도는 육상에서의 스파르타 전력과 해상에서의 아테네의 전력이 전체 그리스를 이끌어 페르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키몬을 두고 “전 그리스인들의(panhellênôn) 최선의 지도자”라고 노래한 희극작가 크라티노스의 표현에서<sup>8)</sup> 키몬의 공세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페르시아를 그리스에 위협한 세력으로 생각했으며, 그리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그가 주장한 ‘쌍두마차체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뤼시스트라테』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어리석음을(1129-34행) 특히 스파르타의 배은망덕을 비판하면서(1143-6행) 페르시아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냈고 둘 사이의 친애(philia)와 맹약을 기원했는데(1246-68행) 바로 이 대목에서 키몬의 정치적 구상의 근본적인 취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키몬의 구상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깨졌고, 두 도시국가는 물론 그리스 전체가 전쟁의 고통으로 시달려야 했다.

러 페르시아 원정이 결정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 총사령관으로 공표되었다. 그는 트로이아 원정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뒤를 잇는 제2의 아가멤논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스스로는 아킬레우스의 뒤를 잇는 제2의 아킬레우스가 되길 원했다. 그의 동방원정은 개인적인 야심의 실천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 전쟁 이후 본격화되었던 범그리스주의적 감정과 열망의 완결판이었다.

5) 많은 학자들은 범그리스주의가 형성된 것을 대체로 기원전 5세기 후반으로 잡는다. Cartledge, P., 1993, *The Greeks*, Oxford, p. 43. Romilly, J. de, 1988, *Les grands sophistes dans l'Athènes de Périclès*, Paris, Éditions de Fallois. Perlman, S., 1976, pp. 1-30. 특히 Romilly는 소피스트운동과 함께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많은 문헌적인 증거들은 Flower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전쟁이 종료된 후인 5세기 전반에도 이미 동방원정의 구상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6)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도 범그리스주의와 같은 생각을 찾아볼 수 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기원전 499년에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르코스는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에게 원조를 요청하며 동방원정까지 제안했다. “헬라스 신들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그대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homaimonas) 이오니아 사람들을 노예상태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대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용감하지 못한데 반해, 그대들은 전쟁에 관해서는 가장 뛰어난 능력(aretê)을 갖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코아스페스 강변에 수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사는 대왕이 거주하고 그의 보고(寶庫)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대들이 이 도시를 함락하면 감히 제우스와도 부를 겨룰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손쉽게 아시아 전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찌서 다른 길을 선택하시렵니까?”(『역사』 V.49)

7) West, M. L., 1993, “Simonides Redivivus”, *Zeitschrift für Papyrologie und Epigraphik* 98, pp. 1-14.

8) 플루타르코스의 『키몬의 생애』 10.4.(=크라티노스의 단편 1)

한편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는 트로이아 원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네이아의 비장한 각오를 아테네 시민들에게 상기시켰다.

“헬라스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대들은 나를 제물로 바치고, 트로이아를 함락하세요. 그것은 두고두고 내 기념비가 되고, 내 자식이, 내 결혼이, 내 영광이 될 거예요. 어머니, 헬라스인들이 이방인들을 지배해야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은 노예고, 헬라스인들은 자유민이니까요.”<sup>9)</sup>

여기에서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인의 침략과 지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나아가 페르시아를 정복해야 하는 이유도 보인다. 노예이며 야만적인 이방인들에게 자유민이며 문명인인 그리스가가 지배를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에게 당한 패배는 그 자체로 고통이겠지만, 그 적이 문명인이 아니라 야만인이며, 관대하고 너그러운 자유시민이 아니라 패악질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노예라면 그 패배는 더욱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분명 이 이야기는 트로이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 3. ‘호메로스 서사시’에 대한 재해석

3.1.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시대가 직면한 문제, 즉 같은 말을 쓰고 생각을 같이하는 그리스인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고 페르시아의 농간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그리스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트로이아 전쟁의 이야기와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다.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그는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가 갖는 의의를 이렇게 표명했다.

“그런데 저는 호메로스의 시가 이방인과 전쟁을 치른 전사를 아름답게 찬양했기 때문에 더 큰 평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시가의 경연대회에서도 젊은이의 교육에서도 그의 솜씨를 명예로운 것으로 삼길 원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서사시를 자주 들으면서 이방인에 대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적대감을 배울 수 있고, 군사적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탁월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과업을 열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59)

그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안위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 그런 일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던 영웅들에 대한 동경과 닮고 싶은 모방의 심리, 이것들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이방인들의 “불행을 알려주는 트로이아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158) 구지 둘을 비교한다면, 트로이아 전쟁 이야기보다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가 더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조상들은 트로이아 원정을 떠났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9) 에우리피데스, 천병희 옮김, 2009,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 1397-1401, 숲.

“이들(=트로이아로 원정을 떠난 전사들)은 단 하나의 도시를 둘러싸고 십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들(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항한 전사들)은 아시아 전체에서 온 병력에 맞서 전쟁을 치르고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무찔렸으며 자신들의 조국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스 전체를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와 같은 용사에게 걸맞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죽는 순간 갖게 될 평판을 위해서 그토록 신속하게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살아서 명성을 누리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일이나 노고나 위험에서 벗어 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83)

이소크라테스의 비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사로서의 용맹함과 그로 인해 얻게 될 평판과 명성, 즉 불멸의 명성이다. 불멸의 명성이란 호메로스의 영웅주의적 가치관에서 볼 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길게, 가능하다면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불멸의 명성을 얻는 것이었고, 그것은 남자들에게 영광을 가져다주는 회의장과 전쟁터, 특히 전쟁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싸워 승리를 거두거나 장렬히 전사할 때 생기는 것이었다. 물론 고전기에 들어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단순한 영웅주의적 가치관 이상의 철학적인 통찰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sup>10)</sup> 그러나 그런 철학적인 통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전통적인 영웅주의적 가치관이 힘을 잃었던 것은 아니다. 영웅주의적 가치관의 비극적인 측면은 그것이 갖는 찬란함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면서 여전히 건재했던 것이다. 페르시아 전쟁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소크라테스의 태도는 여전히 호메로스적이며, 정확히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타난 영웅주의적이다.

“저는 그 전쟁(=페르시아 전쟁)도 신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의 훌륭한(aretē)을 어여삐 여겨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본성을 타고난 이들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명성도 없이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그 대신 신들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반신(半神)의 존재라 불리는 이들(=영웅들)과 똑같은 명성을 누릴 가치가 있음이 알려지도록 신께서 배려한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신들께서는 자식들의 육체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넘겨주었지만, 그들의 탁월함에 대한 기억은 불멸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84)

3.2. 『시민대축전에 부쳐』를 발표하고 약 38년 뒤, 94세가 된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마지막 연설문인 『전 아테네인 축전에 부쳐』에서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들 가운데 유독 아가멤논을 부각시킨다. ‘아가멤논 찬가’(laus Agamemnonis)는 전체 연설의 흐름에서도 ‘논점일탈’처럼 보이게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호메로스의 작품에 그려진 아가멤논과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그는 연설의 첫 머리에서 평생 일관되게 주장하던 ‘범그리스주의’를 재차 표방하며 그리스의 단결과 페르시아 원정을 역설한다.

“저는 앞장서서 말을 하게 될 때면, 헬라스 인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저 야만인들을<sup>11)</sup> 치기 위한 원정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함께 아주 크고 조건이 좋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파병을 하자고 제안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10) 이에 관해서는 이태수, 2013, 「호메로스의 영웅주의 윤리관」, 『서양고전학연구』, pp. 5-30을 보라.

11) 동방의 페르시아인들.

지역에 관해서 우리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약 우리가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광기를 멈춘다면,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위기도 없이 그 땅을 신속하게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은 우리 가운데 생활의 궁핍함을 겪는 사람들을 모두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하며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를, 설령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여 찾는다고 하여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13-14)

그렇다면 그 주도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소크라테스는 『시민대축전에 부쳐』에서 마찬가지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면서 아테네가 그 선두에 설 자격이 있음을 주장한다.(39) 그 어떤 도시보다도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에 ‘좋은 일’(euergesia)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테네의 찬양’(laus Athenarum)에 열을 올린다.(42-69) 이에 덧붙여 아테네가 동맹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 도시들을 파괴하였다는 비난에 대해<sup>12)</sup>, 그런 문제라면 스파르타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반박한다.(70-71)

이 과정에서 그는 트로이아 원정에서 선봉에 섰던 도시들과 그 도시들이 배출한 “덕을 갖춘 지도자들을”(tous hēgemonas aretas ekhontas), 예컨대 멧세네의 네스토르, 라케다이몬의 메넬라오스, 아르고스의 아가멤논을 언급한다.(72) 그 가운데 특히 아가멤논을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언급할 수 있는 모든 덕을, 그것도 적당히(metriōs)가 아니라 월등하게(hyperballontōs) 갖추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비교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며(idōteras), 아름답고(kallious), 위대하며(meizous), 헬라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ōphelimōteras), 더 많은 칭찬을 받을 만한(pleionōn epainōn axias) 행위를 수행해낸 지도자”라고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하면서(73), 아가멤논의 덕과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며 그를 칭찬한다.(76-83)

‘아가멤논 찬사’는 이소크라테스 자신도 고백했듯이, “주제에서 벗어난 사안들을 말하는 것”(tas praxeis tas exō legomenas tōn hupotheseōn)으로서, 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며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식의 ‘주제 이탈의 논변’은 잘못 사용될 경우가 많으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ou mēn alla) 이소크라테스는 이미 시작된 아가멤논에 대한 칭찬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추한 일이기’(aiskhunomai) 때문이란다.(74-75)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한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아무도 감행하려고 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 글을 쓰려고 하다가 ‘지각없는 상태에’(anaisthētōs) 놓이게 되어 ‘추한 꼴을 보이게 된다’(ēisē)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부분에서 적절성에(kairōn)<sup>13)</sup>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12) 대표적으로 델로스 동맹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델로스에 대해 ‘잔혹하게 응징한 것’(meiōsis)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들이 그 존재조차도 잘 모르는 중요하지 않는 작은 섬을 파괴한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큰 것을 작게 말하는 ‘축소의 수사’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반면 그는 스파르타의 잔혹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한다. “말은 동일한 것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일을 평범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을 중대한 듯이 옷 입힐 수 있으며, 옛일을 최신의 일인 양 기술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 고풍스럽게(또는 먼 옛날의 일처럼) 말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대축전에 부쳐』 (7-8)

13) ‘카이로스’(kairos)는 이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카이로스는 전체 연설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이 가져야 적절한 양을 가리킨다. 내용의 중요성과 맥락에 맞춰 그 양과 길이가 결정될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카이로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는 참된 ‘지혜’(sophia)는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상황에 맞게 공동체에 유익한 ‘시의적절한’(karios) ‘의견’(doxa)을 제시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의 의견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어야 하는데, 이때 판단과 말, 행동에 ‘현명함’(phronēsis)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갖춘 지혜롭고 (sophos) 현명하며(phronimos) 수사적인(rhētorikos)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paideia)이 곧 ‘철

만'(all' homōs) “이런 사람에 관해 말을 하면서 그에게 속한 좋은 것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 좋은 것들의 어떤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설의 ‘균형’(summetrian)이 깨지고 ‘적절성이 훼손되어’(akairian) 자칫 그동안의 좋은 평판이 손상을 입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에 관하여 말을 하면서 그 자체에 값하도록 말을 하는 것에 더 진지하게 매달렸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84-86)<sup>14)</sup>

3.3. 아가멤논에게 보내는 이소크라테스의 찬사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아가멤논은 “헬라스 전체의 사령관(stratēgos)이 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며, 이와 같은 평판(doxa)은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76) (2) 아가멤논은 그와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헬라스의 그 어떤 도시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77) (3) 도를 넘어서고 해괴한 일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4)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혼란(tarakhais)에 빠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해냈고, ‘한마음 한뜻’(homonoia)이 되게 하였다.(77) (4) 연합군(stratopedon)을 구성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공격을 이끌었다. 이 원정(stratēgema)은 그의 시대나 그 이후에 평판이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실행해 보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답고’(kallion) ‘헬라스인들에게 가장 유익한’(tois Hellēsīn ōphelimōteron) 것이었다.(77-78)

그런데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익숙한 청중이라면 이소크라테스의 찬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아가멤논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을 소집하여 대규모 연합군을 구성하고 최고지휘관으로 활약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일리아스』의 제1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는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킬레우스를 모욕하여 전쟁터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으며, 그리스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패배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와의 격론(제1권)과, 이후 테르시테스의 독설(2권)에서 아가멤논은 찬사를 받을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이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상상 속에 새겨진 이와 같은 아가멤논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쉽게 지울 수 있었을까?

이소크라테스는 아가멤논의 공적을 열거한 다음에, 그가 자신에게 적합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투로 이야기한다. 그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euergesiōn)보다는 ‘기행을 일삼는 것’(또는 ‘놀랄만한 짓을 하는 것’, thaumatomoiias)에, ‘진실’(alētheias)보다는 ‘거짓으로 꾸며낸 말’(pseudologias)에 더 많이 ‘기뻐하는 사람들’(agapōntas)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분히 아킬레우스의 ‘기행’을 부각시키며 그의 영웅성을 드높이려고 했던 호메로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이렇게 호메로스의 창작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가멤논이 재평가되어야

학’(philosophia)이기 때문이다.

14) 아가멤논의 덕에 대한 칭찬이 전체 맥락에서 수사학적인 의미가 있는 의도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이소크라테스가 말한 그대로 나이가 들어 자꾸 까먹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긴 논점의 일탈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쟁(R. C. Jebb)은 이소크라테스의 말 그대로를 받아들여 전체 논지에서 벗어난 일탈로 보고 있고(1893, *The Attic Orators from Antiphon to Isaeus* II, London, pp. 125-126), 블라스(F. Blass, 1893, *Die Attische Beredsamkeit* II, Leipzig, p. 321)와 벤트란트(P. Wendland, 1910, “Beiträge zu athenischer Publizistik des vierten Jahrhunderts”, *NGG*, pp. 138, 149)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반면 레이스(Race, W. H., 1978, “Panathenaisus 74-90: The Rhetoric of Isocrates’ Digression on Agamemnon”,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Vol. 108, pp. 175-185)는 아가멤논의 덕에 대한 칭찬 부분이 수사학적으로 의도된 것임을 밝히려고 한다. 잠시 논의를 끊고 갑작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주의를 환기함은 물론, 실제로는 스파르타의 과거 행적을 공격하는 데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15) Papillon, T. L., 2004, *Isocrates* II,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187. 파피용은 이소크라테스가 아가멤논을 칭찬하는 것을 핀다로스가 「네메이아 송가」 7에서 최고의 운동선수의 모델로 아이

함을 강조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이소크라테스가 아가멤논을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분열된 그리스를 하나로 묶어 트로이아를 향해 원정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가멤논을 칭찬하면서 이소크라테스는 현재에 극심하게 분열되어 갈등하는 그리스의 도시들을 다시 한 번 하나로 묶고, 끊임없이 그리스의 갈등을 조장하며 위협하는 페르시아를 향한 원정을 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그런 그의 가슴에 떠오른 인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노를린(G. Norlin)은 “아가멤논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위한 하나의 가면”이며 “이소크라테스가 평생을 바쳐서 주장했던 정치적 이념의 최초의 구현자로서, 전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동방을 공격한 최초의 지도자로 이소크라테스의 마음에 우뚝 서있다.”라고 말했다.<sup>16)</sup> 반면 레이스(W. H. Race)는 이 연설문 어디에도 필리포스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으며, 아가멤논의 미덕으로 제시된 것은 필리포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이소크라테스 당시 유력한 지도자들 가운데 범그리스주의를 실현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해석한다.<sup>17)</sup> 실제로 이소크라테스는 그리스를 통합하고 페르시아를 원정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조국 아테네가 그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기대감은 이 연설문에서는 아가멤논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시 필리포스에게 가장 잘 적용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을 필리포스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3.5. 어쨌든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줄 지도자를 모색하는 가운데, 트로이아 전쟁의 전설 속에서 아가멤논이라는 그의 이상형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호메로스에게 의해 입혀진 부정적인 시각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아가멤논의 행적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는 ‘원대한 뜻을 현명하게 품고’(megalophrosunēs) 각 도시에서 온 병사들을 모아 군대를 구성하였다. (2) 그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왕들, 즉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을 설득했다. (3) 그렇게 해서 그는 군대의 질서를 확립했다. 즉 그는 (3-1) 각 도시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었고, (3-2) 그가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에 따라 나서게 만들었으며, (3-3) 그가 명령을 내린 것을 실행하게 하였고, (3-4) 왕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병사로서 생활하게 만들었고, (3-5) 자신의 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를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79-80)

여기에서 마지막 (3-4)가 각별히 중요하다. 이소크라테스가 말(logos)로 표현한 것은 ‘헬레네를 위해서’지만, 그것은 실제(ergos)로는 ‘헬라스가 예전에 이방인들에 의해 당했던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를 의미한다. 이소크라테스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납치해 간 것은 명백히 이방인의 침략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침략은 그리스 역사에서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펠롭스가 내려와 펠로폰네소스 전체를 정복한 것이나, 다나오스가 아르고스의 도시들을 차지한 것, 그리고 카드모스가 테베를 침략해 ‘정복’(katalēpsis)한 것이다.(80)<sup>18)</sup> 아가

아스를 칭찬한 것에 건준다.

16) Norlin, G., 1929, *Isocrates* Vol. II,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18-419. 그 이전에 A. Schäfer도 같은 의견을 표현했으며(1887, *Demosthenes und seine Zeit* III, Leipzig, p. 6), F. Blass(1893, p. 321)와 P. Wendland(1910, pp. 147-153)등이 이와 같은 의견을 보인다.

17) Race, W. H., 1978, p. 175.

멤논은 그리스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공격과 침략, 야욕에 일방적으로 당했던 지난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이방인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거둔 영웅인 것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구상, 즉 분열되고 갈등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그리스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페르시아라는 위험한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범그리스주의’라는 틀에 맞추어 아가멤논을 새롭게 그려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제2의 아가멤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런 인물이 주도할 제2의 트로이아 전쟁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아가멤논의 리더십에는 각별한 것이 있다. (1) 그가 이끈 군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에 뿌리를 두거나 신들에게서 직접 나온 자들”, 즉 헤시오도스의 개념에 따른 영웅들이다. 그들은 여느 인간들과는 다른 기질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었고, 걱정(orgē)과 기개(thumos)와 질시(phthonos)와 명예심(philotimia)로 가득 차있는 자들이었다는 것. (2)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자들의 대규모의 군대를 그것도 10년이나 이끌었다는 것. (3) ‘요즘’의 모든 권력자들이 하듯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재물을 써서 군대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3-1) 남다른 현명함의 뛰어남으로써, (3-2) 적들로부터 얻은 물품들을 군사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으로써, (3-3)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그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짤 수 있다는 ‘평판을 얻음으로써’(tōi dokein) 그런 큰 규모의, 그런 까다로운 구성들을,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유지했던 것이다.(81-82)

아가멤논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로도 칭찬할 이유가 되지만, 훨씬 더 놀랄만한 마지막 업적은 그가 결국 트로이아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말(logos)로 표현된 것은 단 하나의 도시를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이지만, 실제(ergon)로 성취한 것은 훨씬 더 크다. 그는 아시아에 두루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히 메넬라오스의 아내를, 즉 헬라스의 여인을 납치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파리스)의 도시를 굴복시켜 모두 노예로 만들었으며 폭력적인 무례를 범한(hubrizontas) 이방인들을 끝장내 버리기 전까지는 다른 수많은 이방인들의 종족을 대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고향으로 떠나지도 않았던 것이다.(83)

#### 4. 실현된 그리스의 동방원정

처음에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함께 주도권을 행사하는 ‘범그리스주의’를 생각했다.<sup>19)</sup> 그러나 두 도시의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아테네가 앞장 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테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패하고 힘을 잃고나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누렸던 패권을 회복하고 그리스 세계를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뜻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 글을 보냈다.<sup>20)</sup> 이를테면 그는 페르시아 원정을 승리로 이끌어줄 제2의 아가멤논을 찾고

18) 전설에 따르면, 펠롭스는 북쪽의 프뤼기아인이며 ‘펠로폰네소스’는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북쪽에서 그리스 본토로 남하하여 펠로폰네소스 지역에 자리잡게 된 도리아인들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카르모스는 동쪽에서 온 포에니키아인이며, 다나오스는 남쪽에서 온 이집트 인이라고 한다.(Norlin, G., 1929, pp. 420-421, Papillon, T. L., 2004, p. 188)

19) 이후 줄고, 2015,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인문논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pp. 45-77의 내용에서 일부(pp. 63-68)을 수정보완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있었던 것이다.

먼저 그가 주목한 것은 시라쿠사의 디오뉴시오스 1세였다. 그는 카르타고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소크라테스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헬라스의 구원(또는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스의 내분을 종식시켜 하나로 묶고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sup>21)</sup> 이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언제든 그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우리의 도시는 당신이 헬라스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하여 행동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함께 싸울 자세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지금 주어진 이것보다 더 더 멋진 적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sup>22)</sup> 그러나 디오뉴시오스는 답이 없었다. 편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디오뉴시오스 1세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편지는 뒷부분이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기원전 356년에는 이소크라테스는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3세에게도 편지를 보냈다.<sup>23)</sup> “저는 믿습니다. 다른 헬라스인들이 만약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말로써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헬라스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방인들을 겨냥한 군사적 원정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원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을 가장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sup>24)</sup> 그러나 아르키다모스도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소크라테스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인물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였다. 기원전 342년에 만 94세였던 그는 필리포스에게 편지를 썼다. 『전 아테네인 축전에 부쳐』를 쓴 직후였다. “저는 아테네에 관하여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헬라스 사람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사안들을 위해서도 아테네보다 더 유익한 도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sup>25)</sup> 그리고 338년 가을에 필리포스 2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는 이소크라테스(436-338년)가 만 98세가 되던 해 쓴 것이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테베와 아테네의 연합군이 마케도니아에게 패배한 직후, 이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것으로 그가 남긴 최후의 글이다. 그는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적대적인 싸움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필리포스에게 그리스를 통합하고 아시아로 원정을 떠나 페르시아를 정복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다. 먼저 그는 이전에

20)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에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문제다. 그것은 하나의 단일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도시국가들의 자유와 자치를 전제로 평화적 공존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가? 이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세기의 위기 상황에서 그려내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그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유사한 ‘최선자들의 지배 (aristokratia)’를 주장하면서도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전 아테네 시민축전에 부쳐』 131. 김봉철, 2004, 제4장 이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정체개혁), 특정 정체를 옹호하는 대신 어떤 형태든 정치체제(politeia)가 있는 것이 무정부상태보다는 낫다고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의 덕(aretē)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Konstan, D., 2004, “Isocrates’ Republic”, *Isocrates and Civic Education* (ed. by T. Poulakos and D. Depew),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pp. 107-124.

21) 이소크라테스의 경쟁자였던 플라톤도 디오뉴시오스의 정치적 조언자였다. 그는 디오뉴시오스를 찾아갔고, 철학이 정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곧 플라톤의 조언에 흥미를 잃었고 급기야 플라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플라톤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안니케리스의 도움으로 아테네로 돌아갈 수 있었다.

22) 「디오뉴시오스에게 보내는 편지」 8.

23) 이 편지가 이소크라테스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다. Smith, L. F., 1940, *The Genuineness of the Ninth and Third Letters of Isocrates*, Lancaster.

24) 「아르키다모스에게 보내는 편지」 17.

25)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7. 이와 함께 이소크라테스는 필리포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당시 알렉산드로스는 14살 소년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이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듯, 쓸데없는 논쟁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필리포스를 위해 썼던 연설문의 일부를 상기시켰다.

“그 당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도시(=아테네)와 라케다이몬의 도시(=스파르타)와 테베인들의 도시와 아르고스인들의 도시를 중재한 다음에 헬라스인들을 한마음(homonoian)이 되게 해야만 한다고 말입니다.”<sup>26)</sup>

그러나 평화로운 연대의 꿈은 전쟁으로 깨졌다. 이소크라테스의 구상 가운데 반쪽은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 대신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그리스가 하나가 되어 페르시아를 향해 군사적 원정을 떠나야 한다면, 그 원정의 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주도할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던 정치적 비전의 반쪽은 그래서 여전히 희망적이었다. 깨어진 반쪽, 즉 전쟁과 불화의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이제 필리포스를 중심으로 뭉쳐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필리포스도 그런 생각이었다. 그리스를 통합했으니 아시아를 향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다.<sup>27)</sup> 필리포스의 동방원정 계획은 그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었으며, 이소크라테스의 구상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면 이소크라테스의 조언에 따라 필리포스가 행동한 것일까? 이소크라테스는 분명히 그에게 연설문과 편지를 보내 그와 같은 구상을 전했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가 그리던 정치적 구상이 이루어질 시기에 이르렀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필리포스에게 정치적인 야망과 힘을 실어주려고 했다. 그의 수사는 마치 필리포스의 자신감과 야망을 반영하듯이 극단적인 과장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가 만약 페르시아로 건너가 아시아를 정복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성을 줄 것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 신의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에 당신에게 남은 것은 신이 되는 것뿐입니다.”<sup>28)</sup>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평생 꿈꾸며 갈고 닦아온 정치적 구상이 필리포스를 통해 실현된다면, 자신의 삶은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제 고령의 나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생명을 연장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젊은 시절 마음속에 그렸던 것들과 『시민 대축전에 부처』라는 연설문과 당신에게 예전에 보냈던 연설문에서 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당신의 실천들에 의해서 그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sup>29)</sup>

그러나 그 희망은 필리포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필리포스는 동방으로 건너가기 전에 암살을 당했고, 그의 뒤를 이은 젊은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통합하고 동방원정을 떠나 인도 서부까지 정복했던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소크라테스의 구상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따라 동방원정을 감행한 것일까? 둘의 관계에 관심이

26)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2.

27)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끝난 후에 코린토스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필리포스는 동방 원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서 김봉철(2004, p. 281)은 이렇게 정리했다. “기원전 338년의 코린토스 회의에서 의결된 결의내용은 이소크라테스의 범그리스주의 구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코린토스 회의에서는 모든 그리스인들의 자유와 독립이 천명되고 그리스 전체의 일반적 평화가 추구되었으며, 또 페르시아원정이 의결되고 필리포스가그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이 결정들은 이소크라테스의 평소 주장과 거의 일치된다.”

28)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4.

29) 「필리포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6.

집중되는 대목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잠시 보류하더라도, 두 사람의 주장과 실천 사이에는 뗄 수 없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동일성과 유사성에 관한 분석은 필요한 것이다.<sup>30)</sup> 일부의 학자들이 이소크라테스가 필리포스에게 썼던 연설문과 편지를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라도 읽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0) Merlan, P., 1954, "Isocrates, Aristotle and Alexander the Great", *Historia: Zeitschrift für Alte Geschichte*, Bd. 3, H. 1, pp. 60-81. Laistner, M. L. W., 1930, "The Influence of Isocrates's Political Doctrines on Some Fourth Century Men of Affairs", *The Classical Weekly*, Vol. 23, No. 17, pp. 129-131.